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뉴스타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bostonkoreanews.com
 Diane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ISSN 1554-6942

세월호, 한인사회도 가슴으로 운다

한인회, 보스톤코리아와 성금 모금 나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여객선 세월호(SEWOL) 참사가 일주일 넘고 있지만, 생존자 없이 추가 시신 인양 발표만 속속 이어지고 있는데 보스톤 지역 한인들도 슬픔을 함께하고 있다.

사고 발생 원인이나 비효율적인 구조작업에 대해 갈수록 실망만 더 커진다며 침통함을 보이고 있는 한인들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반응이다.

또한 마지막까지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겠다고 숙연함 속에 관련 보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한인 최민우 씨는 "인명 구조에 대한 사명감과 윤리 의식, 준법 정신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예고된 참사"라며 "가슴이 답답해 화병이 날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 더욱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인회 등 단체들은 이국 땅에서나

마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한인들의 마음을 모으고 나섰다.

뉴잉글랜드한인회와 보스톤코리아는 공동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달할 성금 모금을 시작했고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역시 성금모금을 시작했다. 또한 뉴잉글랜드한인회를 중심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할 수 있는

분향소를 마련하고자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한선우 뉴잉글랜드

드 한인회장은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오길 기원했는데, 너무 가슴 아픈 비극이다. 이제부터는 마음만 태울 게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로드아일랜드 한인들은 지난 21일 월요일 오후 나라갯섬 해변(Narragansett public beach)에 모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촛불 집회

▶▶4면으로 계속



H마트 캠퍼리지점 개장

다민족 고객 매장 꼭 채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H마트 캠퍼리지점이 오랜 준비 끝에 개장, 첫날부터 많은 다민족 고객들로 붐볐다.

미주 전체 H마트 매장 중 처음으로 시내 중심가에서 문을 연 캠퍼리지점은 대학생 및 인근 직장인들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알릴 것으로 보인다.

H마트의 브라이언 권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오전 9시 지역 인사들을 초청해 오픈식을 갖고 매장을 열었다.

매장 앞은 9시 이전부터 줄지어 기다리는 고객들로 붐볐고, 이들은 개장과 동시에 쇼핑을 즐겼다. 쇼핑객들 상당수는 미국인, 중국인 등 다민족으로, 새로운 아시아 마켓의 물품뿐 아니라 푸드코트에 입점한 파리 바게트, 사포로, 코코 커리도 둘러보며 호기심을 표했다.

H마트의 캠퍼리지점은 하버

드, MIT 등 아시안 유학생들과 인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주고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장을 둘러본 후 매우 흡족함을 표한 조지나 페리 씨는 "가격이나 품질 등 모든 것이 마음에 든다" "앞으로 하버드, MIT 등이 근처에 있어 많은 대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처에 살고 있다며 자주 이용할 뜻을 밝힌 앤드류 소바 씨는 "깨끗하고 가격도 좋다. 우리는 이곳에 크고 좋은 한국 마켓을 필요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주변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밝힌 데이빗 캐빈 씨는 파리 바게트에서 샌드위치를 사며 "출근 길에 들려왔다. 아침 식사를 위해 이곳을 종종 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들 상당수는 별다른 매장에 없는 아이템을 갖추고 있거나 물

▶▶6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부동산 매매·부동산법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2014년 할인항공전문

From **\$1116~**

보스톤 - 인천 (왕복!) ONLY 1 Stop

4,9,10,11월 비수기 출발!

본 금액은 세금과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티켓가격은 항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디즈니 패키지 투어, 고국투어, 크루즈, 호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권 문의 바랍니다.

WJCE IACE TRAVEL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한국어 상담 월~금 12pm~9pm
 예약센터 영어, 일어 only 1-877-489-4223 (24/7)
 이메일 info@iace-korea.com 온라인 예약 www.iace-korea.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iacetravelkorea

MORTGAGE MASTER

EXCELLENT RATES
 LOW CLOSING COSTS
 ADVICE YOU CAN TRUST

Ezer Lee
 NMLS #8599995
 Mortgage Loan Originator
 P (781) 591-2722
 F (617) 395-6865
 elee@mortgagemaster.com
 www.mortgagemaster.com/elee
 MA LIC # MLO859995

Call me today for a free pre-approval!

Languages: English + Korean

44 Trapelo Road, Belmont, MA 02478
 Mortgage Master, Inc. NMLS #1251(MA)
 Equal Lender/Broker MC4251

뉴스타 부동산의 나원태, 제이슨 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Lexington, Newton, Allston, Brighton, Cambridge, Boston

MA, RI 전 지역의 리스팅 구축, 빠른 정보 전달, 정확한 정보, 철저한 분석으로 최적의 결과 창출, 완벽한 팀웍을 통한 차별화된 부동산 마케팅 제공

나원태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3156
 wonra@newstarrealty.com

Drop off Store

- 인기 핫한 Drop off store
- 좋은 로케이션, 고정적인 손님 / 일년 매출 \$300k 이상
- 저금 전의 주세요. (제이슨 전 617-642-5670)

DRY CLEANERS

제이슨 전 Realtor
 미주 전체 뉴스타 부동산 금탑 다수 수상
 Direct: 617.642.5670
 jason.jeon@newstarrealty.com



양팔이 없는 장애를 극복하고 마라톤으로 재기에 성공한 김영갑 씨

없는 김영갑(42세) 씨가 팔꿈치 부분을 이용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가 짧은 반소매 티셔츠를 입었으리라고 생각지 못한 편견이 당황스러웠다.

흔쾌히 인터뷰에 응한 김 씨는 팔이 불편한 것 말고는 몸도 마음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 보였다. 이번 보스톤 마라톤 기록은 의외로 낮은 5시간. 이유를 물으니, 함께 참가한 여자 선수와 보조를 맞추며 보스톤 마라톤

“힘들다고 포기하면 다른 일도 다 그래”

현장을 즐겼다고 말했다. 선수입장에서 응원자들을 감상하고 사진도 찍었다며 순박한 웃음을 보였다.

김 씨는 지난 1989년 직장에서 일하던 중 전기 감전 사고를 당해 두 팔을 잃었고, 이후 몸도 마음도 병들었다.

그러던 중 체중이 불어나 건강이 힘들어지자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을 달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 마라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때가 2001년이라고 밝힌 김 씨는 “처음에는 운동화도 없어서 등산화를 신고 달렸어요. 세 바퀴 달리고 나니 힘이 들어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늘려가며 달리니, 다섯 바퀴도 되고, 열 바퀴도 되더니 10킬로를 달리고 6개월 후에는 풀 코스도 달리게 됐죠.” 라고 말했다.

이어 2004년 보스톤 마라톤에 처음 참가했고 올해 두번째로 참가한 그는 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는 다 참가했다.

“매번 달릴 때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요,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하면 다른 일도 다 그래요” 라며 깊이 있는 말을 던졌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기로 했어요. 내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라며 담담히 말하는 그는 “장애를 극복하는데 마라톤이 큰 도움이 됐다” 고 말했다.

마라톤을 하면서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외향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당연히 장애라는 사

실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내보이고 살게 되더라는 것이 그의 말이다.

“운동화 끈 묶는 일만 빼고 뭐든 해결하며 산다” 는 그. 지난 4월에는 경북 창인에 있는 육상 실업 팀 입사 시험에 합격했다. 장애 후 잃었던 직업을 25년만에 다시 갖게 된 것이다.

“마라톤을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 이라며 뿌듯함을 표한 그는 “처해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무엇이든 달리 만들 수 있다” 고 경험에서 얻은 신조를 말했다.

김 씨는 이제 결혼도 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하며 “2시간 34분 기록으로 마라톤을 뛰는 것보다 더 힘든 일 같다” 고 여유 있는 웃음도 던졌다.

hckim@bostonkorea.com



완주 후 피로를 달래며 민천과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누는 한국 참가자들



양팔 장애 딛고 달린 김영갑 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118회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 중 3시간 34분 완주 기록에 양팔 없는 장애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윈주 파티장을 찾았다. 극심한 피로와 더위를 시원한 맥주로 달래고 있는 참가자들 중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양팔 모두 팔꿈치 아래가

<진료 과목>

*일반 치과 *잇몸 질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www.gracesalonsboston.com
영업 시간 월요일~금요일:10시~7시
토요일: 9시~8시
예약을 하시면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각종 헤어 컷과 펴고 그리고 스킨 케어

젊음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

매직 스트레이트	Magic Straightening
브라질 케라틴 트리트먼트	Brazilian Keratin Treatment
Threading	Threading
디지털 펴고 & 셋팅 펴고	Digital Perm & Setting Perm
아이롱 펴고	Iron Perm
헤어 컬러링	Coloring (GOLD WELL 사용)
헤어 메니큐어 (코팅)	Hair Manicure
메니큐어 & 페디큐어	Manicure & Pedicure
왁싱	Waxing
얼굴 마사지	Facials
웨딩 서비스	Wedding Services

Grace Salon
프리미엄 토탈 헤어 살롱

그레이스 컷팅 클럽

617-623-2430

56 Union Sq. Somerville, MA 02143
한국종합식품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만치않은대회라 더욱 매력적

보스톤 마라톤 한국참가지들 완주파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참가자와 응원자를 기록한 올 118회 보스톤 마라톤은 더욱 특별했다. 테러를 극복하고 당당히 일어난 보스톤의 정신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보호막이 되어 보스톤 전체를 둘러싼 듯 경건함이 느껴지는 대회였다. 이번 보스톤 마라톤을 8년째 연속 참가하고 있다는 김수한 씨(60세, LA

거주)는 “1만명 가량 참가자가 늘었는데 더욱 일사불란하게 대회가 진행되고 보안이 강화된 것을 보면서 보스톤 마라톤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보스톤 마라톤의 특징을 “기후가 일정치 않은 것과 켈러파이 된 세계적인 선수들이 참가하는 것” 이

라며 “그만큼 만만치 않은 대회라 더욱 매력적”이라고 극찬했다.

김 씨의 말처럼 “쉽지 않아 더욱 매력적인 보스톤 마라톤”은 한국의 마라토너들에게도 동경의 그곳.

올해 보스톤 마라톤에 참가한 한국인 마라토너들 80여명중 50여명은 지난 21일 저녁 니햄의 힘튼 호텔에서 완주 파티를 열었다.

마라톤을 하기에는 꽤 더운 기온 탓으로 참가자들 대부분이 지친 상태였

으나, 이들은 각자 통성명을 하고 자신의 마라톤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40대부터 60대 연령대로, 남성이 더 많았다. 사업가, CFO, 의사, 공무원, 주부 등 직업이 다르고 사연도 제각각 달랐지만, 마라톤으로 인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건강한 몸과 왕성한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얻었다는 것이 이들의 말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에도 보스톤 마라톤에 또 오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 “힘든 순간을 극복하는 힘”을 마라톤에서 얻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는 이들을 보며 “Boston Strong”의 근원을 알 수 있었다.

hckim@bostonkorea.com



IRS 사칭 전화사기 주의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연방국세청(IRS)을 사칭해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려는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토톤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권모 씨는 지난 21일 IRS를 사칭한 발신자로부터 세금 미납액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한 틈을 타 발신자는 전화번호를 하나 남기며 그곳으로 전화해 문의하라고 지시를 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린 권 씨는 발신자가 남겨 준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대신 자신의 사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에게로 전화해 사실을 알리고 문의했다.

권씨의 담당 회계사는 권 씨로부터 전달받은 전화번호를 확인한 후 절대 전화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얼마전 다른 고객이 당한 이야기를 전했다. 그 고객은 그 번호로 전화를 했고, 얼떨결에 소셜 넘버를 넘겨주고 말아 수습하느라고 혼을 뺐다고 알렸다.

권 씨는 “벌써 한인 2명이 이런 전화를 받은 것은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감출 것이 아니라 공개해야 같은 수법에 걸려 피해를 입는 한인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IRS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경우, 일단은 의심해 봐야 한다고 알렸다.

IRS는 IRS 직원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 팩스 또는 우편으로 편지를 받을 경우, IRS(800-829-1040)으로 전화하여 확인하고 가짜 통신내용은 모두 보고하도록 권하고 있다.

IRS 사칭 사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

hckim@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영의 QR 마크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시면 보스톤코리아 홈페이지로 자동 연결됩니다



Publisher & C.E.O
장명술 Myong Sool Chang

Writer
김현천 HyunCheon Kim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오현숙 HyunSook Oh

Graphic Designer
양성대 SoungDae Ya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백린 Rin Paik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콕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상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 TV 사업국
617-955-9459

레이디경향
617-775-8474

재휴일제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SAT Plus

SAT Plus Summer Schedule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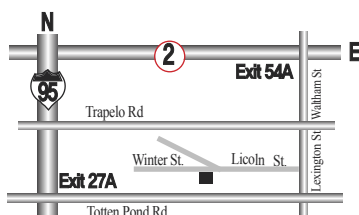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June 7/7 - 7/25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August 8/4 - 8/22 (3 Weeks)

Class	Time
SAT I Prep	8:00AM - 12:00PM (MORNING)
SAT I Prep	1:00PM - 5:00PM (AFTERNOON)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나라간셋 해변(Narraganset public beach) 백사장에 모여 촛불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로드아일랜드 한인들

RI 한인회, 세월호 향한 염원 촛불로 밝힌 승선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애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는 세월호 승선자들의 무사 귀환 및 희생자를 애도하는 촛불 집회를 가졌다.

지난 21일 월요일 저녁 6시 30분 나라간셋 해변(Narraganset public beach) 백사장에 모인 로드아일랜드 한인들은 "빨리 돌아와줘" "기다릴게.." 등의 문구를 적은 종이를 촛불과 함께 들고 승선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했다.

모임은 이동문 한인회장이 진행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촛불점화식으로 이어졌고, 홍지복 이사장이 애도의 글을 낭독했다.

모임에는 URI(University of Rhode Island)와 브라운대학 한인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상당수 한인들이 참여, '사랑으로'와 '아리랑'곡을 합창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모았다.

모임을 마감하며 이동문 한인회장은 이번 참사를 위한 성금모금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일회성 성금보다는 커피 한잔이나 외식 후에 남는 작은 동전으로 시작하자"며 "이를 볼 때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꾸준히 모으자"고 성금 모금 구상을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1면에 이어서

희생자분향소 마련 움직임도 일어

를 열었다. 이들은 비록 먼 거리이지만, 바다를 향해 "기적을 기다립니다", "보고 싶어요, 나의 친구들, 가족들, 동생들..."이라는 문구를 적은 종이를 들고 희생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했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글학교들 역시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제히 묵념의 시간을 갖고 승선자들의 무사 귀환과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8일에

는 보스톤 지역 유학생들이 보스톤 시내 한 광장에서 승선자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촛불집회를 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지역 한인들의 마음은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 모아지고 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기적을 염원하는 노란 리본을 올리는 한인들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소규모 단체들은 성금모금을 위한 행사를 확산시키고 있다.

화음보스톤챔버 오케스트라는

오는 5월 3일 추모 음악회를 열고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한 파티 이벤트 업체도 성금모금 행사를 개최한다.

유가족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한인들은 성금 모금 행사를 통해 직접 성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체크의 Pay to order란에 KSNE로 기입하여 13 Campbell Street Woburn, MA 01810(뉴잉글랜드한인회)으로 보내거나 161 Harvard Ave., Allston MA 02134(보스톤코리아)로 보내면 된다.

hckim@bostonkorea.com

세월호 희생자 위한

"한마음 추모 음악회" 5월 3일 오후 5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세월호 희생자를 위한 마음을 모으는 "한마음 추모음악회"가 오는 5월 3일 오후 5시 보스톤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화음보스톤챔버오케스트라는 "세월호 참변에서 가슴아프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이없이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이번 음악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안에서 어이없이 숨져간 어린 생명들의 넋을 기리고자 하는 한인

들은 이날 음악회에 참석해 추모성금 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

추모성금전액은 KACF(한미문화재단)을 통해 한국의 희생자 가족을 위한 기금으로 보내지게 된다.

화음보스톤챔버오케스트라의 장수인 단장은 "많은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음악에 담아 영혼들을 위로하며 애도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추모음악회는 KACF와 보스톤한인교회가 후원한다.



일시: 2014년 5월 3일(토) 5 PM
장소: 보스톤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티켓: \$10/pp, donation suggested (추모성금)
연락처: sooihnee@comcast.net 978-821-9434

hckim@bostonkorea.com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www.yasuboston.com

야수 레스토랑

자녀를 위해 요리하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야수는 작은 나물에서부터 요리 하나하나까지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만듭니다. 직접 만들어 손맛이 들어있는 야수의 음식 - 맛과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야수를 찾아주세요.

YASU RESTAURANT
Telephone 617.738.2244
1366 Beacon Street, Brookline, M A02446

단체예약
주문음식

한인유학생들 신선한 사업 아이디어 토크

뱍스 칼리지 타이 오프 중심, 창업 아이템 발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뱍스 칼리지 한인학생들이 신선한 사업아이템을 발표, 졸업 후 미국 내에서 창업하고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지난 19일 토요일 뱍스 칼리지 올린홀에서는 50여 명의 한인학생들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3시간 동안 사업 아이템을 공개 설명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학술동아리 '타이 오프 (Tie-off)' 가 주최한 이번 행사 'Tie-off AddVenture(a Dream-Discovered Venture)' 에는 커피 자판기를 기획한 델리카토(DELICATO), 곰인형을 판매해 전갱고아들을 돕고 이윤도 창출하는 '비어 투 호프 (BEART-WOHOPE)', 그리고 요리 숙련가들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요리를 공급하는 비마이세프(BEMY-

CHEF) 세 팀이 참가해 자신들이 고안하고 기획한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팀원들은 신선한 제품 아이디어 (Minimum Viable Product)를 공개했으며, 참석자들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각 팀의 사업성을 평가했고, 최종적으로 델리카토를 가장 우수한 사업팀으로 선정했다.

고급커피전문점을 축소시켜 놓은 것 같은 고급스러운 이미지, 하지만 가격은 저렴하고 주문 및 결제는 간단하게 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델리카토' 는 캡슐커피 기술을 이용해 만든 커피 자판기를 사업 아이템으로 삼았다.

이 팀의 리더 이현준 군은 "남은 학기동안 사업계획서를 쓰는 데 초점을 맞출 것" 이라며, "투자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 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창업 이야기를

들려준 '엔젤라 & 로이' 의 이동길 대표는 "한국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외 다른 도전들을 준비하는 것이 뿌듯했다" 며 "이번 타이 오프 가 시도한 좋은 행사에 보스톤 주변 많은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hckim@bostonkorea.com



뱍스 칼리지 한인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창업하고 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 기획한 사업 아이템 발표회가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됐다

KABC 창업 이야기 세미나

생명과학자에서 사업가로 김소연 박사 "나는 이렇게 바이오 회사를 창업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보스톤 지역 한인생명과학자 네트워크 KABC에서 '창업' 세미나를 개최한다.

'창업인과 창업정신 연구' 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창업세미나는 오는 29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Cambridge Innovation Café 에서 진행되며, 연사는 바이오 업체인 PCL과 PCL의 미국 지사인 PCL US를 창업한 김소연 박사가 맡는다.

김소연 박사는 코넬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한국 LG Life Science에서 근무하다 미국과 한국의 벤처 투자 기금을 함께 받아 창업에 성공한 이야기들을 전해줄 예정이다.

과학자의 길에서 창업의 길을 가게 된 이유와 과정을 통해 보스톤 지역에서 대학원 박사과정 및 포스트닥, 또는 바이오 산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에게 창업의 가능성을 전한다.

KABC의 회장 고종성 박사는 "2014년은 창조경제와 창업정신에 대해서 배우보는 한 해로 정했다" 며 "관심 있는 일반 한인들도 참석해 많은 도전과 용기를 받아가길 바란다" 고 전했다.

김소연 박사의 창업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한인들은 www.kabc.org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일시: 2014년 4월 29일(화) 오후 6:30 - 8:30

장소: Cambridge Innovation Café, Cambridge Innovation Center 5th Floor, 1 Broadway Cambridge, MA 02141

hckim@bostonkorea.com



(좌)이번 학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델리카토 커피자판기 팀이 설명하는 모습
(우)특독 튀는 신선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소개한 'BEMYCHEF' 팀



Frank Y. Shin, D.M.D.
현 Tu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미용치과 (Veneers/Bleaching)
- 아말감 대신 치아색으로 [Composite Fillings]
- 응급환자 당일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보험 지정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 샤부샤부

한식&일식

"2013년 보스톤 잡지 선정 한식1위인 가주순두부 이제 얼스톤과 캠브리지 두곳에서 모시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1시~ 밤11시까지입니다.

얼스톤 주소: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8540

캠브리지 주소: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6868



단체예약과 문의 가능

>> 1면에 이어서

보스톤 중심에서 한국 알리는 플랫폼

품 가격이 저렴하지 않는 한, 딱히 캠브리지점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개장 첫날이라 궁금해서 들러봤다는 김영숙 씨는 “매장은 잘 돼 있지만, 좁고 복잡해 제대로 쇼핑을 할 수 없

었다” 며 “마음껏 쇼핑카트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벌링턴점을 이용할 것”이라 밝혔다.

H마트의 송대홍 부사장은 “캠브리지점은 H마트를 통틀어 시내 중심가에 처음 오픈하는 곳”이라며 “미주

류사회에 다가갈수록 위생, 안전, 식품 관리, 품질 등에서 부끄럽지 않은 매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한인사회를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hckim@bostonkorea.com



홍대홍 부사장



1. 미주 전체 H마트 매장 중 처음으로 시내 중심가에서 문을 연 캠브리지점 개장식 장면, 브라이언 권 대표이사(좌에서 네번째)와 매사추세츠 주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리본 커팅을 했다
2. 브라이언 권 대표이사 H마트에 대해 알리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3. 비오는 날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객들이 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지어 서있다
4. 매장을 오픈한 후 장을 보는 고객들, 매장이 작아 쇼핑 카트를 이용하는 고객은 눈에 띄질 않는다

홍대홍 부사와 나는 인터뷰

개장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다운타운 한복판에서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처음이라 좀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단은 중심부에 매장을 오픈한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낀다. 미주류 사회에 다가갈수록 위생, 안전, 식품 관리, 품질 등에서 부끄럽지 않은 매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첫날 고객들의 호응이 좋다. 고객들이 많이 올 거라 기대했나?

시내 중심에 열었던 적이 없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 홍보라고는 지역 신문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기대하지 못했다.

한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벌링턴점을 통해 많은 교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만큼 부족했다.

좀 나아지긴 했지만 만족하지 않고, 한국 교민들 덕에 오늘날의 이런 시간들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부족하지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교민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는 곳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

다.

한인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뭔가?

소매업자이기에 다른 노력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스톤의 소비시장, 특히 아시안들에게 양질의 식재료 등을 제공하며 문화를 알리는 일이다. 교민들 생활의 한 부분이 되도록 개선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불편한 점, 아쉬운 점, 노력할 점을 알려주면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겠다.

앞으로 예정된 계획은?

최근 몇년새 급격히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매장을 늘려나가는 것을 포함해, 품질향상에 주력할 것이다.

지역 내 가장 큰 한인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한인커뮤니티를 도울 계획은?

보이지 않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 여러가지 기회를 통해 힘 닿는 데까지 도울 것이며 미국서 함께 살아가는 교민으로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무료전화 1-888-666-170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만립
Tel 617.739.2888
www.utsboston.net

Universe travel services
100 Hano Street #23A, Allston, MA 02134

공인회계사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공인세무사 김창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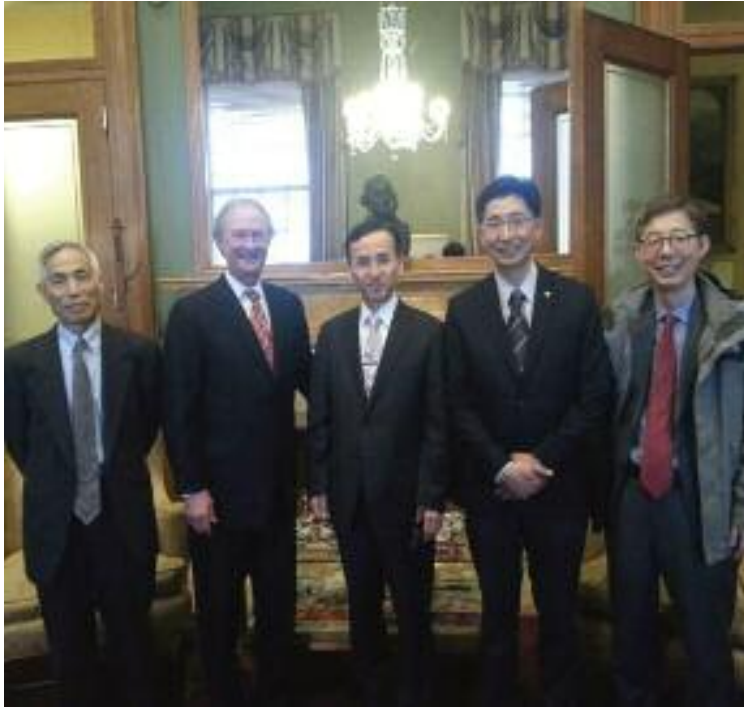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총영사와 만남 훈훈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지난 15일 화요일 '2014 전임회장단 및 로드아일랜드 한인회(회장 이동문)는 이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엄성준 신임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전임회장단 및 이사장단이 엄성준 신임 보스톤 총영사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스톤 총영사를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는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명 예상인원 모두 참석해 훈훈한 시간을 나눴다.

한인회는 국민의례에 홍지복 이사장의 인사말씀과 이원중 제3대 한인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신임 엄성준 총영사를 환영하는 의미로 꽃다발을 증정했다.

엄성준 총영사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각 한인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임기동안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어 엄 총영사는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자세하고 알기쉽게 답변했다.

한편, 엄 총영사는 한인회와 만나기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인 링컨 차페(Lincoln D. Chafee)를 방문하고 한미우호 및 FTA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자리에는 로드아일랜드 주 경제개발위원장 존 패글리아리니(John R. Pagliarini)와 주민원 담당자(Director of Constituent Affairs) 윌리엄 킨셀라(William Kinsella)도 동석하여 신임 총영사를 환영했다.

hckim@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한인회 총영사와 한인사회 발전방향 모색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엄성준 주 보스톤 총영사는 지난 18일 뉴잉글랜드한인회 임원과 관계자들을 뉴튼 소재 영사관 관저로 초대해 만찬을 나누며 지역 한인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엄 총영사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마친 뒤, 부임 후 보스톤에 대해 느낀 점을 말한 후 보스톤 지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엄 총영사는 먼저 한인회 회원 1,000명 돌파를 축하하고, 그동안의 한인회의 노력을 높이

치어 교민들의 숙원인 인천-보스톤간 직항 개설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선우 한인회장은 엄총영사의 부임에 환영의 뜻을 전한 후 독도 병기법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해 엄 총영사에게 설명했다.

이 날 모임에는 한선우 회장과 김은한 고문 외에도 한문수 수석 부회장과 장수인 부회장, 성기주 고문 변호사, 이정수 마케팅 부장, 안병학 이사장, 그리고 영사관 직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hckim@bostonkorea.com



뉴잉글랜드 한인회 임원과 관계자들이 영사관 관저로 초대받아 엄성준총영사와 만찬을 나누며 지역 한인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로드아일랜드 30주년 오픈 태권도 대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로드아일랜드 30주년 오픈 태권도 대회가 오는 5월 3일 브라운대학 피치틀라스포츠 센터에서 개최된다.

행사 시작은 오전 10시부터이지만, 등록은 아침 8시부터 시작되며, 시범팀은 오전 9시부터 경기를 펼친다.

홍진섭 관장은 이날 로드아일랜드

주지사, 프로비덴스 시장, 주의회로부터 공로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관장은 4월 30일 오후 3시 주의회에서 홍진섭 관장 공로 표창 건을 상정하여 통과 시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일시: 5월 3일 오전 8시부터 / 장소: 브라운대학 피치틀라스포츠센터



“당신의 신장은 이상 없나요?” 간호사협회 신장 무료 검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뉴잉글랜드 한인 간호사 협회는 지역 의사와 하버드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신장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신분과 국적에 관계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뉴잉글랜드 한인 간

호사 협회 홈페이지 www.Korean-Nurse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시: 2014년 5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3

장소: 문수사 (Korean Buddhist Temple),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

bostonkorean@hotmail.com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개인상해-교통사고, 미끌어짐, 낙상사고, 동물 물림
채무(개인, 세금)-신용카드, IRS, 사업 거래처 조정, 합의
파산법, 이민법, 추방소송 디펜스, 비즈니스 회계, 세무, 중개, 매매
민사소송, 형사소송 디펜스

상담문의: (781) 712-1706 CHANG & ASSOCIATES, P.C.
@ One Burlington Business Center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사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대행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t.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 michelle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 글짓기대회 주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회장 한순용)가 2014년도 뉴잉글랜드지역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오는 5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뉴잉글랜드한국학교에서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협의회 회원학교 소속 학생이나 Pre Kinder 이상 어린이 누구라도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각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당일 등록도 가능하다. 글짓기 용지, 참가신청서와 기출제 목 등은 재미한국학교 NE협의회 홈페이지 (www.naks-ne.com)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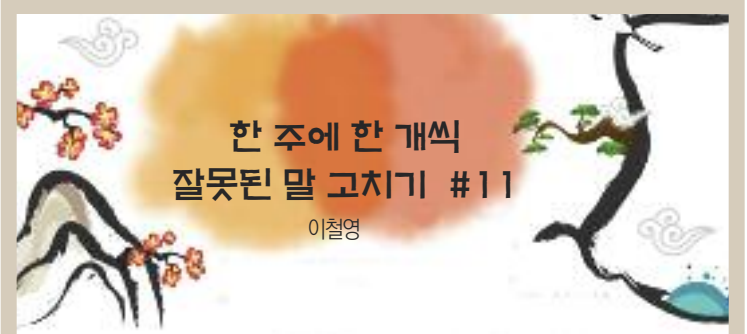
대회는 각 학년별로 이루어지며, 그룹당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입 선의 상이 주어진다.

또한 9학년 이상 대상 중 최고 득점 자 1명에게는 보스톤 총영사상이 수여 되고, 각 학년별 대상에게는 협의회장

상이 주어진다. 참가문의는 한순용 (soonyhan03@gmail.com) 회장, 김현정 (anasta24.kim@gmail.com) 총무에게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웹사이트 <http://www.naks-ne.com/>을 통해 알 수 있다.

hckim@bostonkorea.com



한 주에 한 개씩
잘못된 말 고치기 #11
이철영

팔, 다리가 얇아요 (X) -> 팔, 다리가 가늘어요 (O)
허리가 두꺼워요 (X) -> 허리가 굵어요 (O)

둘레가 있는 원통형인 사물은 '굵다', '가늘다'로, 책과 같이 한쪽 측면에 두께가 있는 사물엔 '두껍다', '얇다'로 써야 합니다.

무조건 "얇다, 두껍다"로 쓰는 것 역시 언어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입니다.

주의해서 쓰도록 시도해 보세요. 한 주일에 딱 한 가지씩, 우리 말의 좋은 기능들을 파괴하는 잘못된 말습관을 바꾸기 위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 주일에 한 가지씩만 신경 써 보세요. 우리말의 아픈 곳들이 나아집니다.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어린이날 기념 뮤지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지역 뮤지컬 배우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어린이날을 맞아 기념 뮤지컬 공연을 편다.

프로즌 등 디즈니 노래들과 대중적인 뮤지컬 노래들을 발표하는 이번 공연은 오는 5월 10일 토요일 6시 보스톤 한인교회 ECC 홀에서 보스톤코리아 뮤지컬 싱어즈(Boston Korean musical singers) 멤버인들이 꾸미는 아마추어 무대다.

청소년 및 어른들로 구성된 출연자들은 솔로 공연은 물론 합창, 합주 등 풍성한 공연을 보일 예정이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연주하고, 청소년들이 중창 또는 합창으로 재밌게

연기하는 모습들은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줄 것”이라는 것이 정종은 디렉터의 말.

정 디렉터는 또한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의 장점인 공감할 수 있는 음악회에 중점을 두고 기획했다”며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프로즌 곡들도 선보일 것”이라 전했다.

이번 공연에는 반주에 윤지혜, 보컬 코칭에 차형진 씨가 도움을 주고 있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617-595-5850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일정: 5월 10일 토요일 오후 6시
장소: 보스톤 한인교회 ECC 홀, 32 Harvard St. Brookline, MA.

hckim@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천 기자 =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그룹 미스-엔 (Mise-En)이 보스톤에서 처음 공연을 연다.

괴테 인스티튜트의 초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이번 공연은 오는 5월 2일 오후 8시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미스-엔(Mise-En) 보스톤 공연 하문영 씨 곡 독일 현대 작곡가의 곡과 한무대

Institut Boston)에서 이루어지며 하문영 씨 등 한국 작곡가의 곡과 함께 독일 현대 작곡가들의 곡을 연주한다.

곡이 공연되는 독일 작곡가로는 뉴욕에 거주중인 프리드리히 하인리히 케른(Friedrich Heinrich Kern)과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엔노 포페(Enno Poppe), 그리고 마티아스 핀처(Mathias Pintscher)이며,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씨의 곡(Oktett)과 하문영 씨의 곡도 연주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괴테인스티튜트 웹사이트 <http://www.goethe.de/ins/us/bos/ver/en12488437v.htm>에서 알아볼 수 있다.

일정: 5월 2일 오후 8시



장소: Goethe-Institut Boston, 170 Beacon Street, Boston

hckim@bostonkorea.com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부동산 중개인 김현구
Chris H. Kim, GRI Realtor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와 드립니다
주택 무료 감정

Cell 617.694.0985

Brookline Office: 622 Hammond Street, Chestnut Hill, MA 02467 (B) 617-566-2447
Newton Office: 1261 Centre Street, Newton, MA 02459 (B) 617-969-2447

Covering Boston, Brookline, Newton, and Greater Boston
Chris.Kim@NEMoves.com

Birchtree Properties, R.E.

이정선 부동산

*부동산 비즈니스 세일

Cell 781.883.5984
Fax 781.874.9587
Work 781.874.2087
Email Chunglee7@gmail.com

33 third street medford, Ma 02155
www.btpusa.net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보스톤마라톤, 31년만에 미국인 뱀 우승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다시 돌아온 보스톤마라톤에서 미국 선수가 31년만에 우승했다. 1년 전의 폭과기억은 접어둔 채 3만2천여 명의 마라톤 주자들이 다시 합킨톤에서부터 보스톤까지 달렸고 수많은 관중들이 도로 곳곳을 가득 채워 <보스톤스트롱>의 의미를 다시 보여주었다.

37세의노장 뱀 케플레지기는 1983년 그렉 마이어가 미국인으로서 우승한 이래 처음으로 2시간 8분 37초(개인 최고 기록)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관중들과 지난해의 폭과참극으로부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관중들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나는 관중들에게 의지했고 관중들도 나

를 지지했다. 응원의 힘은 정말 대단했다. 결승점에 다다를 때는 숨진 희생자들을 생각했다. 내 자신에게 레드삭스가 우승했듯이 나도 이길 것이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고 밝혔다.

그는 코스 내내 선두를 달렸지만 콜리지 코너(Coolidge Corner)에서부터 케냐의 체벳에게 거의 지근거리까지 따라 잡혔으나 종료직전 다시 한번 스퍼팅을 통해 1위를 확정지었다.

케플레지기는 지난 2009년 뉴욕 마라톤에서 우승했으며 2006년에는 보스톤마라톤에서 3위를 기록했다. 2004년 올림픽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37세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종료지점을 통과한 후 푸시업을 했을 정

도로 에너지가 남아있었다.

한편 여자부에서는 케냐의 리타 젠티가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2시간 18분 57초로 보스톤마라톤 여자부 신기록을 세웠다. 젠티의 기록은 지난 2002년 케냐의 마가렛 오카요가 세운 2시간 20분 43초였다.

올해는 총 3만 5천 755명의 주자가 참가했으며 맑고 청명한 봄날씨 속에서 경기를 치렀다.

휠체어 부분에서는 41세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벤 다이크가 2010년 이래 다시 우승을 차지했다. 그는 통산 10번째 보스톤마라톤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부 휠체어에서는 태타이어나 맥페이든이 2년 연속 우승했다.

editor@bostonkorea.com



보스톤 마라톤에서 30여년 만에 미국인으로 우승을 차지한 뱀 케플레지기

마라톤 우승 뱀의 운동화 스케처스 화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38세의 노장 선수인 뱀 케플레지기가 보스톤마라톤을 우승하면서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나이 뿐만이 아니었다. 그가 신었던 신발에도 색다른 조명이 이뤄졌다.

이번 마라톤의 승리자는 보스톤, 케플레지기 그리고 신발회사 스케처스 유에스에이라고 볼 수 있게 됐다.

보스톤 마라톤에서 스케처사가 제조한 of Skechers GOmeb Speed 3를 신은 케플레지기는 결승선을 통과한 순간 스케처사의 신발 홍보대사가 되어 버렸다.

22년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신발을 제조해온 스케처스는 일상적인 신발 제조회사였다. 조 몬타나가 신었던 편안하고 케주얼한 운동화가 주 생산 품목이었다.

몇해전 스케처스는 기능성 신발 분야에 사업을 확장했고 결국 이번 마라톤에서 우승한 케플레지기

로 인해 신뢰도를 얻게 됐다. 스케처스의 기능성 신발은 달리기 매거진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케플레지기의 승리는 이 신발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38세의 노장이 이 운동화를 신고 우승했다면, 이 운동화를 신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는 것이 스포츠용품점 한 주인의 이야기다.

스케처스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18억5천만달러로 2012년 15억6천만달러보다 증가했다.

지난 2012년에 스케처스사는 해당 신발이 근육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혐의에 대해 4천만불을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납부기도 했다. 이제는 이를 과거의 일로 돌릴 수 있게 됐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마라톤 경제 효과 \$175M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2014년 보스톤마라톤 대회에는 역대 대회중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 지난해 발생했던 테러 때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데다가 마라토너의 참여를 확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최 측의 분석이다.

보스톤 마라톤 주관사에 따르면 작년엔 9천명으로 제한했던 참가인원을 올해는 3만 6천명까지 늘렸다. 마라톤 참가자 중 절반이 넘는 2만 1천명은 뉴잉글랜드를 제외한 미국 내 다른 주에서 왔다. 5,330명은 해외 70개국에서 참가했으며, 나머지는 매사추세츠 주를 포함한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온 마라토너들이다.

마라톤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코스를 따라 늘어선 인파도 크게 증가했다. 26.2마일에 이르는 마라톤 구간에서 구경을 하는 인원은 보통 50만명 내외지만, 올해는 1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많은 인원이 찾은 만큼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 역시 상승했다. 그레이트 보스톤 컨벤션 뷰로에 따르면 올해 마라톤 대회 전후 5일 동안 발생한 경제 효과는 약 1억 7천 5백만 달러다. 작년의 경우 보스톤 마라톤 대회로 인한 경제 효과는 약 1억 3천만 달러였다.

마라톤 기간 동안 보스톤과 캠브리지 인근의 호텔은 예약률이 90%까지 올라갔다. 예년의 경우

마라톤 대회가 있을 때 호텔 예약률은 83-84% 수준이었다.

그러나 보스톤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 효과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패트릭 모스카리토로 그레이트 보스톤 컨벤션 뷰로 국장은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단순히 돈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중요한 것은 이 대회가 더 크고 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사람들이 약속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있다” 고 말했다.

jsi@bostonkorea.com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직 공무원

주택매매, 구입, 임차/사업체알선

김택운
Sales Associate

Cell: **(617) 678-9330**

Fax: (617) 497-9947 E-mail: tkim@century21avon.com
1675 Massachusetts Avenue, Cambridge, MA 02138

“당신의 환한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쓰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DongWon Kim DMD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3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매사추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교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Educational Consulting Department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 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Academic Tutoring Department

SAT, SSAT, TOEFL, Writing 전문 학원

대표 강사 부원장: James Kim, Harvard, Yale 철학 전공

책임 강사: Robin Burns,
Stanford Univ. English Major, MS, BA, 수석 졸업,
SAT Verbal 800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Math, Essay Writing, Physics, Chemistry, Biology, History, Spanish, French, Latin, TOEFL, SSAT, ISEE SAT, ACT

\$70-100/hr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집중반	7월6일-8월 20일, 월, 수,	10 AM-1PM	\$1250	실전 테스트 5회
개인 지도	학생이 지정		\$60-\$80 여름 특별가	전 과목

단 주 1회 실전 테스트 일은 10 AM-1:30 PM, 최소 인원 3명

여름 방학 특강 (서울)

개인지도 혹은 4인 이하 소 그룹: 문의 02-579-9731

지도과목: SAT, ACT, AP US History, AP English, SSAT, TOEFL, Reading/Writing

기숙학교 연중 프로그램(안전한 홈스테이, 항공, 교통편 제공)

Program	기간	그룹 지도	개인 지도	제공서비스
추수 감사절	11월 중순-말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성탄 휴가	12월 중순-말	SAT, SSAT,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봄방학	3월중 3주간	SAT, SSAT, TOEFL, ESSAY	전과목	교통편/항공편, 숙식

이 프로그램 들은 2001년 부터 6년 째 제공되고 있는 정평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가 이 기간 중 한국에서 오시는 경우 편안한 장기 투숙 안내 제공.

- 주말 교통편, 홈 스테이, 학업 지도, 봉사 활동 제공 - 학생이 필요한 과목별 개인 지도, 유학생을 위한 집중 영어 쓰기 지도 제공
- 한 학교에서 3명 이상이 같은 프로그램으로 오는 경우 할인 혜택
- SAT는 CR과 Writing점수목표가 650-750사이인 학생을 목표로 함. SSAT는 80-99%를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클래스임.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402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체스넛힐점에 26일 개장하는 웨그먼스 보스턴의 슈퍼마켓에 경쟁의 바람을 불고할 것

웨그먼스 체스넛힐점 26일 오픈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웨그먼스 체스넛힐점이 2년의 공사를 마치고 이번 주 일요일 오전 7시에 문을 연다. 이미 1만1천명이 웨그먼스 체스넛힐점 할인카드를 신청해 놓을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개장을 기다려왔다. 웨그먼스 슈퍼마켓은 총 7만 스퀘어피트 규모에 4만여 식품들이 전열되며 식료품이 스토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체스넛힐점은 다른 스토어에 비해 훨씬 작은 규모이지만

여타 83개 지점과 같은 느낌을 창출하기 위해 많은 아이디어가 가미됐다. 일단 정문이 다른 체스넛힐 스퀘어 점포들과 반대편에 위치해 있다. 일단 식료품을 먼저 만나는 노스보로점과 달리 체스넛힐점은 따뜻하게 조리된 음식과 여러가지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는 소위 마켓카페를 먼저 통과한 후 식료품을 맞게 된다. 마켓카페의 베지테리안 바에는 아티초크 플렌과 블랙빈 엔칠라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홈 스타일 바에서는 실렌트로 라임 치킨 등이 준비되어 있고 버즈 커피샵에서는 카푸치노, 커피 등을 판매한다. 샐러드 바는 전체가 유기농이다. 아시안 바는 차이나스, 타이, 인도 푸드 등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음식은 파운드 당 \$8.99로 동일하며 각 음식마다 칼로리가 표시된다. 푸드 카운터에는 피자, 샌드위치, 스시, 스프 등이 구비되어 있다. 베이커리는 매일 아침 최소 15개 종류의

갓 구운 빵을 내놓는다. 웨프스케이스는 메인 음식과 2개의 사이드로 구성된 \$6, \$8, \$10짜리 밀을 판매한다. 식료품 매장에는 로컬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500여개의 과일과 채소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맥주와 와인을 판매하는 리커 스토어도 있다. \$6짜리 와인 광고가 눈에 확 들어온다. 다른 웨그먼스 매장과 가장 대비되는 곳은 패키지 상품들 코너다. 일반적으로 22개 진열대가 있지만 이곳은 약 12개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웨그먼스의 CEO 대니 웨그먼 씨는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가장 인기없는 마른 식품을 제거하고 대신 핵심적

인 식료품과 푸드 섹션을 보존했다. 그리고 앞 창가의 좌석도 100명정도를 수용할 정도로 줄였다. 웨그먼씨는 “우리는 고객들에게 건강한 식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웨그먼스의 보스턴 인근 진출은 보스턴 슈퍼마켓들의 극한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웨그먼스는 루트9 건너편에 있는 스타 마켓을 비롯해 홀푸즈, 로치 브로스 등과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보스턴 미국내 5번째 공기좋은 도시

(보스턴=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내에서 가장 공기가 좋은 곳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스턴은 5번째 공기좋은 곳에 위치했다. 공기청정기 회사 허니웰사가 환경 건강 공학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폴렌의 수, 오염도, 그리고 공원 접근도 등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의 케이프 코털과 팜비치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텍사스 주의 오스틴이었다. EH&E사의 수석과학자 테드 맷트 씨는 “심한 교통체증과 제조업

이 남아 있는 도시는 최하위권에 속했다. 폴렌의 수와 오염도는 지형적인 요소가 컸다. 때로는 산에 의해 둘러싸이기도 하지만 대양의 바람에 씻겨 가기도 한다” 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내륙지방 보다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드 맷트 박사는 천식이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에는 공기의 질이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hsb@bostonkorea.com

정관장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

사랑을 전하는 선물

누구나 좋아하는 정관장 홍삼이 좋습니다.

정관장 특별 프로모션

10% OFF

성인 톤제품 및 자녀제품

행사기간: 5월 18일 까지

Event 2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무료증정

FREE GIFT

타주로도 포장 후배송해 드립니다.

781-238-03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로 주문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홍천웅, 톤골드, 톤마일드, 화애락본, 양아록, 홍이장군, 아이패스, 올든

정관장 紅蔘 SINCE 1899 6년 KOREAN RED GINSENG

보스턴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MART** Burlington점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Mass. 법원 시스템 디지털화 시동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디지털 시대 합류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시작했다. 변호사가 적법한 서류를 컴퓨터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주 변호사, 판사, 서기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종이 서류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매사추세츠주만이 기록철 작성방식을 전산화하는 것에 부진했던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단 몇몇 주만이 모든 민사 법원에 e-파일링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한 출자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라고 버지니아주 윌리엄버그에 위치한 '주법원을 위한 내셔널 센터(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의 기술 자문위원 짐 맥밀란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는 법원 시스템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드는 데 많은 투자를 해왔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웹상에서 접근성이 좋은 기록들을 만들면서 이 길을 이끌어왔다. 연방법원은 전자기록관리 시스템을 1988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몇몇 주에게는 예산 부족은 물론 e-파일링 시스템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도약을 위해 필요한 많은 기반시설 정거점들이 부담이 된다고 맥밀란은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는 작게 시작할 것이다. 올해 여름, 3개의 주항소법원과 3



보스톤에 위치한 존 아담스 대법원

개의 사실심법정에서 e-파일링 시스템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이후 주법원은 더 많은 법원을 시스템에 추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e-파일링 시스템은 매사추세츠주 법원에서 과학기술 응용을 확장시키기 위해 2013년에 받아들인 큰 계획 중 일부이다. 예를 들어, 연방 사법부에서 일반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일반 국민이 온라인으로 법원 서류를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저장소는 법원과 변호사들, 그리고 상당한 양의 공금을 절약할 것이고, e-파일링 시스템은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고 매사추세츠주 사실심법정 관리자인 해리 스펜스는 밝혔다.

지난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사추

세츠주 사실심 법정 직원들의 수는 대략 7,500 명에서 현재 6,400명으로 축소됐다. 따라서 e-파일링이 법원 직원의 업무량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e-파일링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변호사가 사건을 전자로 정리할 때 내는 서비스 비용(7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중이 접근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서류를 프린트할 경우 비용을 낼 수도 있다.

매사추세츠주의 변호사들은 법원으로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법원 직원이 자신의 서류를 처리하는 시간이 짧아질거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hsogh@bostonkorea.com

T, 새 지도·차량 실시간 위치추적 정보 제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다음 버스나 열차가 언제 도착할지 궁금해 하는 보스톤의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해 매사추세츠주 교통당국(MBTA)은 보다 많은 교통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T맵 만들기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T의 지도로 채택된 새 T맵이 지난주부터 그린라인의 40개 열차에 설치되었다고 지난 22일 MBTA는 밝혔다.

현재 T차량의 약 20%가 새 T맵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버스와 열차의 T맵은 오는 6월까지 교체될 예정이다. T의 가장 붐비는 역에 있는 280개의 T맵 역시 오는 6월까지 교체된다. 나머지 900개 역의 지도들은 내년까지 교체될 것이다.

T맵의 새 버전은 그린라인과 실버라인의 모든 역을 표시한다. 예전 지도에는 일부 덜 붐비는 역은 지도에 글씨가 복잡하게 써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략되었다. 또한 새 지도는 가버먼트 센터 역이 2016년까지 닫히는 것과 어셴블리 역이 올해 말 오픈한다는 정

보도 알려준다. 지난 2월 포레스트힐즈 역에 등장한 버스카운트다운 표지는 T시스템 중 가장 붐비는 버스터미널인 더들리 역에 설치되었다.

올해 초 T가 내놓은 계획에 따라, 더 많은 버스카운트다운 시계가 하버드, 헤이마켓, 애쉬몬트, 켄모어, 매버릭, 잭슨스퀘어, 그리고 센트럴스퀘어 역에 설치 중이다.

버스와 레드, 오렌지, 블루라인 열차에 대한 실시간 카운트다운 정보는 이제 T의 자체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수년간 T역의 디지털 시계와 동일한 데이터를 제3자에 의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해왔다.

T의 관리자 비버리 A. 스콧은 "정보는 고객의 여행을 가능한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열쇠다. 당신이 어디로 갈지 또는 언제 버스가 오는지 아는 것은 모든 차이점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hsogh@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안녕하세요. New Star Realty의 지나 최입니다. 1997년에 보스톤 지역으로 유학을 와서 학부와 대학원(MBA)을 마치고 다년간 BOSTON과 CAMBRIDGE 지역에서 직장 생활로 각 지역마다의 장점, 단점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업중이며 불경기에도 10년 이상의 가족 비즈니스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인 자리에 검과 사업체 매매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 Lexington, MA 02420
Tel: (781) 259-4989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 969-4989



Acton 콘도
\$249,000, 2beds, 1.5baths, 1,370 sq ft(학군 좋음)



Natick 콘도
\$469,000, 2beds, 2baths, 1,323 sq ft(몰과 private 통로)



Lexington 단독주택
\$1,469,000, 5beds, 4.5baths, 7,405 sq ft(2014 새집)



luxury harbor tower 콘도
\$519,000, 1bed, 1bath, 753 sq ft(실내 수영장)



Wesford 단독주택
\$650,000, 4beds, 3baths, 3,986 sq ft(야외 수영장 딸린 집)



Cambridge Luxury Apartment
한달 또는 두달 무료있음

뉴잉글랜드 최고 인기 스포츠 스타는?

미국 전체에서는 르브론 제임스, 페이튼 매닝이 뒤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 스타는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의 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는 탐 브래디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뉴잉글랜드가 아닌 미국 전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 스타는 마이애미 히트에서 뛰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였다.

스포츠 트렌드를 분석하는 블로그 베스트 티켓에서는 구글의 검색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선수와 스포츠 팀을 발표하였다. 베스트 티켓은 2013년 4월부터 1년 동안 구글에서 사람들이 검색한 스포츠 선수와 스포츠 팀의 월평균 검색 횟수로

순위를 매겼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스포츠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였고, 제임스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많이 검색된 선수였다. 세계 순위에서는 코비 브라이언트(엘에이 레이커스)와 플로이드 메이웨더(퀀투 선수)가 그 뒤를 이었다. 탐 브래디는 공동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내로 국한시키면 순위가 조금 바뀐다. 미국 내 1위는 역시 제임스지만, 2위는 페이튼 매닝(덴버 브롱코스), 공동 3위가 애드리안 피터슨(미네소타 바이킹스)과 브래디였다.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는 풋볼이라는 점 역시 구글 검색 결과에

서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스포츠 리그는 압도적으로 NFL이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NBA가 많이 검색되었다.

리그별 검색 순위를 보면 NFL 팀 중에서는 덴버 브롱코스, 시애틀 시호크스, 뉴잉글랜드 패트리엇스가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 NBA에서는 마이애미 히트, 엘에이 레이커스, 휴스턴 로켓츠가 상위를 차지했다. 보스톤을 연고로 하는 셀틱스는 NBA 팀 중 10번째로 많이 검색되었다. MLB 팀들을 살펴보면 뉴욕 양키스와 엘에이 다저스가 1, 2위를 차지하고, 보스톤 레드삭스가 그 뒤를 이었다.

jsi@bostonkorea.com

보스톤 출신 스트리밍 회사 에어리오 TV 방송사와 저작권 대법원서 공방

(서울=연합뉴스) 류창석 기자 = 미국 방송업계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는 인터넷 TV '에어리오'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22일 열렸다.

에어리오는 미디어업계의 거물인 배리 딜러가 2012년에 발족한 인터넷 TV로 뉴욕을 포함해 미국 내 13개 도시에서 영업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가입자들이 소형 안테나를 통해 에어리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해 TV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가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 달 이용료는 8~12달러에 불과하다.

반면에 기존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식의 TV프로그램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보고 싶지 않은 방송 내용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묶음으로 사야 해 평균 사용료가 월 100달러를 훌쩍 넘는 다.

이런 장점 덕에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에어리오의 가입자가 3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방송업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ABC, CBS, NBC, 폭스 등 대형 방송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대형 방송사들은 에어리오도 다른 케이블 TV업체나 위성방송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재전송료를 지불해야 한다며 에어리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심리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에어리오의 기술 모델이 단지 법적 금지규정을 회피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에어리오의 주장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대법관들은 방송사들의 편을 들어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스티븐 브레이크 대법관은 이번 소송의 전망이 자신을 긴장하도록 만든다면서 "우리가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는 다른 무엇을 어떤 식으로든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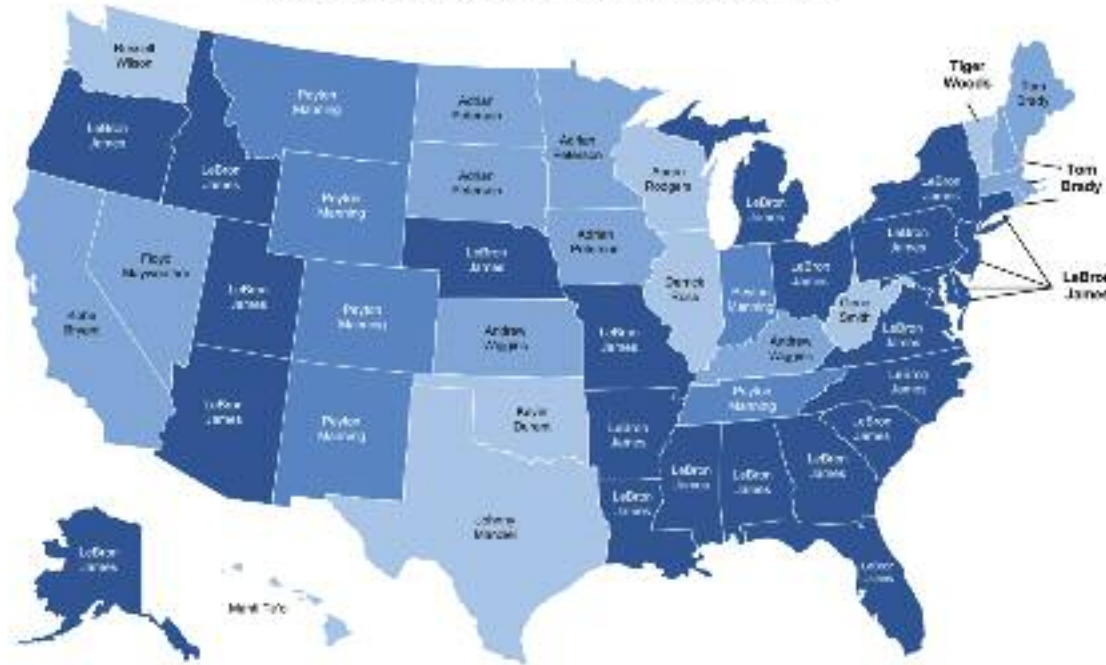
방송사들을 대표하는 변호인 폴 클레멘트는 에어리오의 서비스와 일반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어리오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저작권이 있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에어리오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경우 구글 드라이브처럼 서버에 저장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어리오는 또 자사의 서비스는 아이튠스에서 노래를 구입해 나중에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저장장치에서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Most Popular Athletes by State

Average Monthly Google Search Queries



bestticket

교통사고
직장상해
닥터노트
학생보험

물리치료 재활치료 전문병원을 찾으십니까?

한.닥터스 통증 병원 대표 임원
뉴욕 마티스 통증 클리닉 대표 워랑
노스이턴 대학교 물리치료학 박사
메모리얼병원 재활의학과 수퍼바이저
워싱턴 디씨 통증병원 임장
대구대학교 외과 교수
삼육대학교 외과 교수
영남대학교 교수 | 외과장
한양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617.731.1001
GOODPT.COM
44 Washington St, Suite 104 Brookline, MA 02445

DOCTOR PHYSICAL THERAPY
닥터스통증병원

Century 21
SHAWMUT PROPERTIES

송 윤주 Realtor
Yoon Song

Direct: 857-636-0429
Email: Yoonjoo@century21.com
Web: YoonBoston.com

Exclusive listing - Cambridge Townhouse
\$799,000 / 2 Bed 2 Bath / 1477sq
최고의 위치
Fully Renovated 조용한 심금하우스같은 타운하우스
운동바닥 / 새로운 전기 난방 시스템 / 세탁기 / 콘창고

최고급 디자이너 화장실
개인 야드 / Dock / Court Yard
하버드 까지 도보로 10분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은혜 한의원

Grace Acupuncture
& Oriental Medicine

원장: 백승희 (경희한의대 42기)
각종 상해, 의료보험 취급 / 편리한 주차

전화 781.862.1842
442 Mar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21
www.graceaom.com



지난 22일 소수계 우대정책(AA) 폐지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미 연방 대법원

미 대법원,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 폐지 합헌'

각 주의 결정권 인정, AA 폐지 확산 예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2일 소수집단 우대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AA)'을 폐지한 미시간주의 주헌법 개정을 합헌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지난 2006년 미시간 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공립대에서 AA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한 결정에 대해 하급심을 뒤집고 찬성 6대 반대 2로 합헌 판결했다. 지난 2012년 11월 하급심인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이 유권자 58%의 찬성으로 이뤄진 주 헌법 개정이 평등권 위반이자 차별이라고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과거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시절 이 사안을 다룬 적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을 제외한 8명만 심리에 참여했다.

합헌 의견을 낸 안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번 사안은 인종 선호에 대해 어떻게 논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를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각 주는 유권자 투표 등을 통해 정책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찬성 표는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관장과 앤서니 케네디, 새뮤얼 알리토, 클라런스 토머스, 앤서니 스키타리아 대법관이 던졌다. 진보 진영에서는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이 동참했다.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행사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 AA의 합헌 여부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다. 미시간주는 2006년 공립교육에서 "인종·성별·피부색·출신 민족 및 국가를 근거로 차별하거나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주 헌법을 수정한 '프로포지션 2'를 주민발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이후 민권운동가들은 미시간주 수정헌법이 연방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어긴 것인지 가려 달라고 대법원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이번에 "유권자가 투표로 의결한 것을 법관이 바꿀 권리가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즉, 법원의 법리판단보다 국민의 뜻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이날 반대표를 던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법원의 다수 대법관들은 차별의 미국 역사에서 소수 사회를 다르게 대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격한 어조로 말하며 "법관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인종 불평등 문제를 뒷짐 지고 앉아 사라지는 것을 방관하기 보다 맞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히스패닉계 최초로 미국 대법원에 입성한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흑인인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AA 정책으로 프린스턴 및 예일대에 합격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미시간주를 포함,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워싱턴,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등 8개 주가 이미 주민투표 등에 의한 주 헌법 개정을 통해 AA 정책을 금지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대법원 결정의 영향력은 급격히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미국의 소수계 우대정책을 가리키는 용어다.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동등고용기회위원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처음 도입됐다. 3년 뒤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이 법안의 정신에 따라 시행되는 정책과 조치들을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부르게 됐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학입학, 취업, 진급 또는 연방정부 사업에서 소수인종(특히 흑인과 히스패닉계) 및 여성 등 일종의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한 쿼터를 인정함으로써 기회를 주는 조치이다. hsoh@bostonkorea.com

미 중산층, 더 이상 세계 최고 부유층 아니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미국의 중산층은 오랜 기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해 왔지만, 더 이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뉴욕타임즈(NYT)가 지난 22일 보도했다.

NYT는 전 세계 부자들 중 미국 갑부들은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중하위층의 경우 지난 30년간 다른 선진국의 시민들 보다 훨씬 더 적은 임금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소(Luxembourg Income Study)의 조사 결과, 2010년 미국의 일인당 평균소득은 18,700불이었다. 1980년대 이후로 20% 올랐지만 2000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감안해 조정된 후, 거의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유럽의 평균소득은 아직도 미국보다 뒤쳐지긴 했지만 미국과의 격차가 십 년 전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 영국에서는 일인당 평균소득이 20% 올랐고 네덜란드에서는 14% 상승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캐나다에서는 평균소득이 20% 상승해 18,700불에 맞먹게 되면서 그 이후로 미국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일인당 국내총생산과 같이 흔히 인용되는 통계 수치는 아직도 미국이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보여주지만 이러한 숫자는 평균을 나타낼 뿐 소득 재분배를 정확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국의 회사들은 다른 나라의 비슷한 회사들에 비해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더 작은 장려금을 분배하는 반면 미국의 고위관료들은 다른 선진국의 고위관료들에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돈을 번다. 최저임금은 더 낮으며 노조 또한 열세다. 또한 미국의 부자는 다른 나라의 부자들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낸다. 이러한 결과로, 미국에서는 '이용 가능한 수입'의 불균형이 크다고 NYT는 분석했다. hsoh@bostonkorea.com

연구진은 강조했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 매년 1500억달러의 지폐가 새로 유통되며 평균 수명이 21개월 정도다. hsoh@bostonkorea.com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모기지를 위해

PNC Mortgage | 성취하는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조건의 고정금리 모기지, 받고 싶을 수 있는 대출 전문자들, 시급, 경험이 풍부한 대출 담당자가 대출과정을 좀 더 빨리 진행해 드립니다. PNC 모기지와 함께하세요. 편리한 모든 디지털로 대출기간 동안 우리 지 드롭 다운 상환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환은 물론 또한 선택 가능합니다. PNC 모기지 대출 담당자에게 상담해 작업한 다음 출구권을 알아보세요.

Kimberly Moon
Mortgage Loan Officer
NMLS# 838021

857-204-0174
One Wall Street
Burlington, MA 01803
kimberly.moon@pncmortgage.com

PNC MORTGAGE

지폐 오염 심각, 세균·박테리아 3천종 검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오현숙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지폐의 오염이 심각하다고 지난 19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1달러짜리 지폐 80장에서 각종 박테리아와 세균, 곰팡이, 꽃가루, 동물 분비물 등 무려 3000여종이나 되는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뉴욕대학교 '더티 머니 프로젝트' 연

구진의 보고를 인용해 보도하며, 기존 지폐 오염연구가 100여종의 미생물을 발견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연구는 지폐 오염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가장 흔한 오염물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세균이었다. 위염과 폐렴, 포도상구균 등 식중독 유발균도 검출됐다. 특히 일부 박테리아는 항생제에 내

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더했다.

뉴욕대 연구진은 3000여종의 유전자 가운데 인간 관련 유전자는 분석이 가능했지만 비인간 유전자는 20%만이 판독 가능했다고 밝혔다.

뉴욕대 유전자·시스템생물학센터에서 유전자 배열을 맡고 있는 제인 칼튼 박사는 "미생물이 단순히 지폐

에 묻어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폐에서 자라고 있었다"며 "우리는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종이와 면사 등으로 만들어진 지폐는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미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인데다 지폐를 넣은 지갑을 몸에 지니고 다니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기에 적합한 온도도 제공된다.

반면에 캐나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돈은 물을 흡수하지 않아 미생물 오염도가 낮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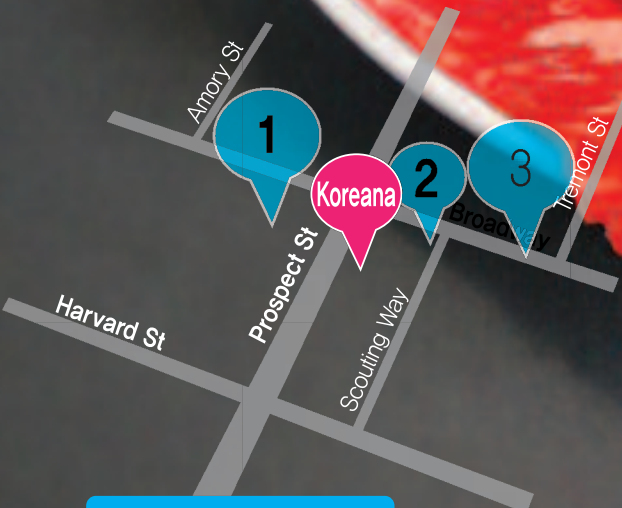
TASTE OF KOREA
코리아나
 KOREANA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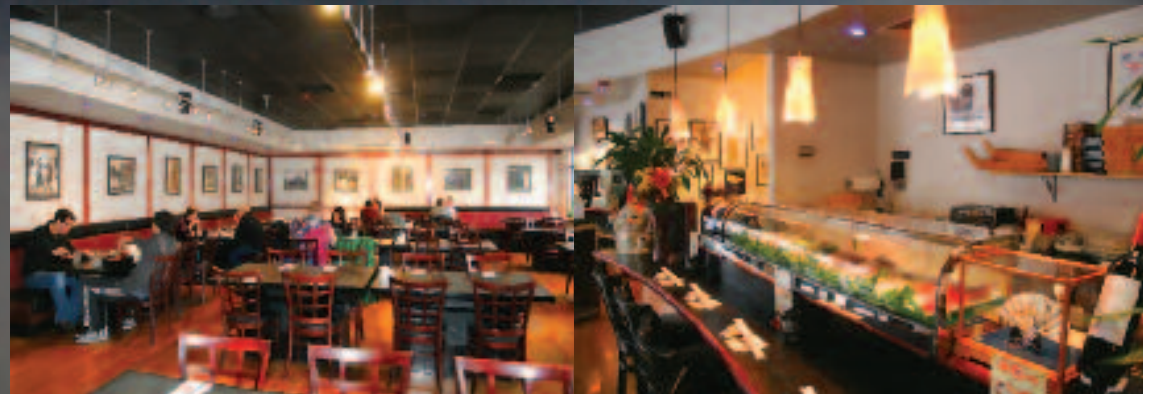
BEST OF BOSTON
2006

BEST OF BOSTON
2001

BEST OF BOSTON
2000



모든 테이블에 최신 바베큐그릴을 설치, 한결같은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Parking Information

1. 주유소주차, Broadway Gas Station (Mon~Sat: After 6pm), (Sun, Holiday: All Day)
2. 건물 뒤 주차장, Drive Way(Behind Building) (Lunch: 4 Cars), (Dinner: 2 Cars)
3. 도로주차, Broadway Play Ground 옆 (2 Hours Free Parking: 8am~6pm), (After 6pm: Free) (Sun: All Day Free)

*이외에도 Free Parking 가능한 곳이 Restaurant 가까이 여러곳이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617.576.8661
www.koreanaboston.com

영업시간
 일요일-목요일(11:30AM~10:30PM)
 금요일-토요일(11:30AM~12:00AM)
 154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사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228)

상속 수혜자(Beneficiary)의 중요성

세상에 태어나서 한눈에 반해 부부가 몇십 년을 함께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난 후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슬픔에 정신이 멍할 뿐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결정해야 하는 유산정리는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되는 은퇴자산(Retirement Account)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은퇴자금인 IRA, 401k, TSP, SEP, SIMPLE, Rollover IRA, 등에 가입할 때 상속수혜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우선 수혜자(Primary)로 기록하며 부부가 함께 돌아가실 경우를 생각해서 다음 수혜자(Secondary)를 자식들 이름으로 남깁니다. 상속수혜자로 설정하는 금융자산의 혜택은 상속되는 자산이 프로베이트를 통하지 않고 바로 상속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합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불쌍한(?) 남편들 많이 사랑합니다.

은퇴자산을 아내가 상속받을 때 세 가지 방법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속받은 자산 전부를 찾아서 세금을 낸 후 원하는 명품으로 소비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 이름으로 변경하면 원래 아내가 가지고 있던 은퇴자산처럼 됩니다. 세 번째는 수혜자 IRA(Beneficiary IRA)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고생길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압니다.

두 번째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선호합니다. 남편의 나이가 70이고 아내의 나이가 65라고 가정합니다.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은퇴계좌를 변경하면 본인의 나이 70 1/2가 될 때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RMD를 찾는다는 말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 번째 선택은 먼저 돌아가신 분 즉 남편 나이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내의 나이가 59 1/2 미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하여 남편의 은퇴계좌를 자기 이름으로 변경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여 은퇴계좌에서 돈을 찾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은 물론 벌금 10%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수혜자 IRA를 선택하면 벌금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편 은퇴계좌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남아 있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갈 때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수혜자 IRA로 변경됩니다. 영어로는 Beneficiary IRA,

Decedent IRA, or Inherited IRA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받은 상속은 IRA의 주인(남아 있던 아내)이 사망한 날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정해지는 RMD를 찾아야 합니다. 정해진 RMD를 찾지 않으면 5년 규칙 (five-year rule)이 적용되어 5년 내에 상속받은 은퇴자산 전부를 찾아야 합니다. 상속받은 아이의 나이가 50이라면 자기의 높은 수입과 은퇴자산에서 나오는 돈까지 수입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그만큼 많아집니다.

상속되는 과정만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제대로 하는 상속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은퇴자산의 포트폴리오(Portfolio)의 구성입니다. 한 예로 남편이 직장인 이었다고 가정합니다. 몸담고 있던 회사 주식을 많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경비가 많은 뮤추얼 펀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를 아내가 물려받습니다

이성적으론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남편이 해 놓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포트폴리오는 투자 위험성이 높습니다. 투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부가 함께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상

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으며 인덱스 펀드나 ETF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해서 은퇴자금을 운용하는 재정설계사(RIA,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를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에 관한 것은 변호사(Elder Law)와 세금에 관한 것은 회계사(CPA)와 상담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주(state)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JESSICA BEAUTY

한국 종합 화장품 | 참존 화장품 직영

시선집중 잡티개선, 주름개선, 탄력개선, 미백까지...

“화장품에도 당신의 인격과 품격이 묻어납니다”

나만의 화장품으로, 내 피부는 내가 만든다.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상륙 참존 스킨타운샬에서 피부관리 하시는 멤버에게만 사용하는 제품

처진 피부에 회소식
 스킨타운 프리미엄 리와이징 크림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 (탄력강화, 조직이 살아납니다)
 잡티 개선 참인셀 비타민C, E 크림



617.770.0188
 온라인 쇼핑몰 오픈 | 무료배송

JessicaSecret.com

219 Quincy Ave. #31-A, Quincy, MA 02169
 金門 Kam Man Food 중국마켓 안에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파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newstarrealty.com

2014 Spring Market

바이어들 '신중'... 봄 주택시장 달라졌다

주택시장 상황이 지난해 같지 않다는 말이 요즘 주택업계에서 나온다.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렸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주택 판매속도가 많이 더뎠다. 지난해보다 매물이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주택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다. 3월 중순이 지나서야 바이어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구입 열풍은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인 구입자들에게 인기 있는 일부 지역에서만 여러 명의 바이어가 오퍼를 제출하는 '복수오퍼' 현상이 나타날 뿐 팔리지 않는 매물이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 반면 주택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오르고 있고 우려됐던 모기지 금리 상승 현상도 아직 없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 모기지 금리는 연초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로 올해 안에 큰 폭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숏세일, 차압 등 급매성 매물이 사라진 대신 신규 주택 구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올봄 주택시장의 특징 중 하나다.

■우려했던 모기지 금리 상승 없어

연초에 우려됐던 모기지 금리 상승 조짐은 주택시장이 이미 성수기로 진입한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초보다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1월 약 4.53%(30년 만기)로 다소 높은 수준에서 시작된 모기지 금리는 이후 지속

적으로 하락하며 3월 말 현재 약 4.32%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모기지 금리는 올 한해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르더라도 주택 수요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까지 최고 약 5.5%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구입 능력 하락은 크게 우려되지 않는다.

반면 과거 봄철 성수기를 앞두고 모기지 금리가 소폭 오르던 추세와 달리 올해는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서 주택 수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기지 금리 변동은 경제 상황과 관련이 깊다. 경제가 불안하면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반대로 경제가 호전되면 금리는 오르게 되어 있다. 최근 개최된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재닛 옐런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아직도 낮은 편이고 금융위기 여파가 남아 있어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계획임을 시사했다.

시중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양적완화 종료 가 올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후 6개월간 더 금리변동이 없을 것임을 최근 회의에서 밝혔다. 따라서 모기지 금리도 올 연말까지는 큰 폭의 상승 없이 안정적인 변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매물 여전히 부족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매물 부족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다. 지난해에는 주택 가격이 낮아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가 많았던 반면 올해는 주택 가격 상승에 힘입어 집을 내놓는 셀러가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와 같은 극심한 매물 품귀현상은 해소됐지만 그래도 매물 공급이 전반적으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값이 올라 집을 팔 여력이 생긴 셀러가 늘긴 했지만 동시에 차압 매물, 숏세일 등 급매성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모기지 연체율 등이 낮아지면서 숏세일, 차압 등의 급매성 매물은 아예 자취를 감춰 주택 매물 부족현상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코어록스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올해 역시 주택 자산가치 상승으로 강동주택 비율이 크게 낮아져 차압 매물 숫자가 급감할 전망이다.

급매성 매물은 일반 매물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첫 주택 구입이나 낮은 가격대의 주택 구입자들의 주요 구입 대상이다. 저가대 매물이 감소할 경우 첫 주택 구입자들의 주택시장 진입이 막혀 전반적인 주택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인터넷 활용 더욱 증가

인터넷을 통한 주택 매물 사냥이 더욱 확대되는 것도 최근 주택시장의 흐름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NAR)가 실시한 조사에서 지난해 주택 구입자 중 약 90% 이상은 주택 구입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했다고 했을 정도로 이미 주택 구입 때 인터넷 활용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는 이미 잘 알려진 매물 검색 사이트 외에도 각종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한 매물 정보 교환이 활

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에는 사진 기반 소셜 네트워크인 핀터레스트를 이용한 주택 매물 정보 교환과 매물 마케팅이 매우 활발한 편이다.

올해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 구입 비율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각 웹사이트 별 사용법을 잘 익혀야 주택 구입 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상에 주택 매물 검색 사이트가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웹사이트 별로 제공하는 자료가 조금씩 다르고 일부 웹사이트는 자료 업데이트가 제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웹사이트 중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몇 개 골라 활용하면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 구입이 한결 수월해 진다.

■서브프라임 융자 재등장

주택시장이 회복된 틈을 타 서브프라임 융자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주택시장 침체기 동안 집이 차압돼 크레딧 점수가 대출기준 미달인 주택 구입자, 최근 집값 상승에 주택 구입 능력이 떨어진 첫 주택 구입자들 서브프라임 융자의 주요 대상이다.

크레딧 점수가 640점 미만으로 일반 주택 대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이자율 등 수수료가 과거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성행하는 서브프라임 융자는 대부분 소규모 렌더에 의해 발급되고 있고 최고 35%까지의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하고도 무려 8~10%에 가까운 이자율이 적용돼 피해가 우려된다.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파워딩 / 택배 서비스

결혼식비디오예약중 Nabis Studio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대한통운 보스톤 지사
<http://www.keboston.com>

대한통운 과 CJ 아시아 최고의 물류시장 오픈!!
뉴잉글랜드의 모든 이사를 맡겨 주십시오.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타주이사
한국 및 타주 자동차 운반

고국의 전지역 일주일 도착을 보장하는 **항공택배**

24시간 이사상담

978-461-2424 / 1-888-239-9377
e-mail 상담 : huny@keusa.com

51 Knox Trail, Acton, MA 01720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노래방 시설 완비!

월-목 11:30~3:00/4:30~10:30

금-일 11:30~3:00/4:30~11:00

잊을 수 없는 한국의 맛을 압구정에서 느껴보세요!



확! 달라진 메뉴와 맛으로 **압구정**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계냉면도입"

입에서 살살 녹는 생갈비와 로얄양념갈비
그리고 푸짐 칼칼한 아구찜과 곱창 전골!!



9시 30분 이후 단체 식·노래방 이용 가능!

단체 손님 예약 환영!

뉴 압구정 찾아 오시는길
(뉴튼 센터 역에서 차트 3분거리)

1114 Beacon St. Newton, MA

예약문의: 617.527.7888

단체 식·노래방 시설 완비!



백린
(보스톤코리아 컬럼니스트
역사문제 연구소 연구위원)

<오대산 사고지 (史庫址) 답사기> 3

< 월정사 >

한국 역사에 그 이름이 자주 오르 내리는 고개는 이 대관령과 금강산으로 통하는 천마산의 단발령이다. 단발령은 그 옛날 신라 경순왕의 태자, 마의태자(麻衣太子)가 검은 머리를 자르고 이 고개를 넘어 금강산으로 들어갔다고 하여 이름을 단발령이라 하였다는데, 영동으로 통하는 오대산의 대관령은 동방의 대철학자이며 정치가인 율곡선생이 여섯살 때 어머니 신사임당의 손에 끌려 이 대관령을 넘었다는데 그 이름이 더욱 유명하게 된 것 같다.

우리가 대관령을 넘어 월정사로 향한 것은 해가 질 무렵이었다. 진부면 소재지에서 버스를 내려 청계옥류의 물소리를 들으며 월정사로 통하는 산길을 따라 한참 걸어가니 월정사의 문루가 보였다.

월정사에 도달하였다고 좋아서 대웅전 앞뜰에 들어서니 인적이 없었다. 다 어디를 갔을까.

역사에 그 이름이 높은 이 월정사에 스님이 보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했다. 우리가 월정사를 찾은 것은 불공을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월정사가 상원사로 가는 초입이며 이 절이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古刹)일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팔각구층 석탑이 유명하고, 더구나 오대산 사고의 수호사찰로 역사에 그 이름이 높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다.

그런데 월정사에서 스님을 볼 수 없었고 치성을 드리러 온

시주님들도 보이지가 않았다. 오래된 고찰이어서 그럴까 아니면 촌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면 불교가 쇠퇴해서 신도의 발길이 끊어져서일까.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행여나 누가 있을까 하고 이리저리 둘러 보았더니 사미(沙彌) 하나가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때고 있었다. 주지스님이 계시느냐고 물었더니 “큰스님은 출타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고 하였다. 그후에 알았지만 범람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월정사는 38번사의 하나이다. 월정사의 창건 유래는 석일련의 삼국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길게 말하지 않겠다.

해는 이미 저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당시의 월정사를 본 소감을 이렇게 읊어본다.

오대 명산 월정사(五臺 名山 月情寺)
불전 향로 부향축(佛前 香爐 焚香燭)
주증 원행 미귀래(主僧 遠行 未歸來)
일모 청산 만종선(日暮 靑山 晚鐘聲)

주지스님이 아니 계시니 절에서 하룻밤을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절에서 멀지 않은 민가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하룻밤 신세질 것을 부탁했다. 주인은 우리를 공손히 맞으며 저녁 식사까지 지어 주었다. 이튿날 아침 조반도 거른 채 일찌감치 상원사로 길을 떠났다.

알림: 지난번 글 (사고지를 찾아서)에서 ‘선덕여왕’ 이라 한 것은 성덕왕(聖德王)의 오기이므로 정정합니다.



월정사 9층석탑



한의원 선유당

진료 과목

- 통증치료 알러지
- 불임 갱년기 여성질환
- 여드름 한방피부미용(주름개선 안면침)
- 소아진료 성장침 비염 아토피
- 교통사고 유학생 여행자보험 적용가능



www.sunudang.com

**1208 VFW Parkway #201
Boston MA 02132
617.327.1812**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인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17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dentallexington.com
www.icodentallexington.com

Dr. 차 영 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오 동 현
교정 전문의

앤젤라 엄



앤젤라 엄 (Angela Suh Um)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대표

앤젤라 엄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본사가 있는 보스톤 아카데미 컨설팅 그룹(Boston Academic Consulting Group, Inc.)의 수석 컨설턴트이다. 앤젤라 엄은 하버드 졸업생으로서 하버드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버드와 M.I.T.에서 입학사정관(Admissions Officer)으로 오래 활동하였다.
상세 정보 @ www.BostonAcademic.com, (617) 497-7700

No portion of this article shall be published, re-produced, or otherwise used in any form without the express written consent of the author.

최고 명문 대학 입학 전략

“2014년 정시지원 합격 현황”

“솔직히 말해서 충격을 좀 받았어요.” 스탠퍼드대학 학부입학처장인 리처드 쇼(Richard Shaw)는 지난 주 미국 명문대학들의 올해 입학 현황에 대해 위와 같은 소감을 표명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합격률이 이토록 낮아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 스탠퍼드는 2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이 되었는데, 전체 지원자 가운데 95 퍼센트가 불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은 단지 5.7 퍼센트에 그쳤다. 하버드와 예일도 6 퍼센트의 합격률을 보였고, 컬럼비아와 프린스턴은 7 퍼센트를 기록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스탠퍼드, 코넬, 그리고 노스웨스턴 같은 대학들은 합격률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2003년 코넬의 합격률은 31 퍼센트였는데, 올해는 14퍼센트이다. 2004년 40 퍼센트를 넘었던 시카고대학(University of Chicago)의 합격률은 올해 겨우 8 퍼센트이다. 무엇 때문에 대학 입학 경쟁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일까? 대학이 학생을 이전에 비해 적게 선발하기 때문일까? 대학이 갈수록 신입생 정원을 줄이기 때문일까?

간단히 답하자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미국 내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은 지난 20년 넘게 신

입생 정원을 동일하게 유지해 왔다. 심지어 프린스턴, 코넬, 그리고 브라운 같은 대학들은 입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했다. 대학 입학 경쟁이 치열해지고 합격률이 낮아지는 주된 요인은 명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수가 지난 1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UCLA의 경우, 올해 86,000명이 지원했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것이다. 1980년대에는 대략 6-7,000 명이 지원하던 MIT에 올해에는 18,000명의 학생이 몰렸다. 스탠퍼드의 1994년 지원자 수는 14,000 명이었으나, 올해는 42,000 명이 넘었다. 이런 수치는 정말 놀라운 것이다.

지원자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전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명문대학들이 공통지원양식(Common Application)을 채택함으로써 지원서 작성이 쉬워진 학생들이 더 많은 대학을 지원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한 학생이 대략 7-8개 대학을 지원하였다면, 요즘에는 11-12개 정도가 보통이 되었다. 둘째, 대학 진학 열풍이 거세지면서 불안해진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에 지원함으로써 지원자 수는 증가하고 합격률은 떨어

지게 되었다. 이는 다시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듬 해에는 자녀들로 하여금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외국인 지원자의 폭발적 증가다. 특히 중국 본토와 인도 같은 나라에서 매우 뛰어난 학생들이 미국 명문대학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대학 진학 광풍 속에서도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 많은 대학에 지원한다고 해서 그 가운데 어떤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각 대학들이 나름대로의 보충 자료인 에세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대학의 지원서와 에세이의 “질”(quality)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지원서와 에세이를 대학에 막 뿌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전략”(strategy)이 생명이다. 대놓고 막 쏘면 도리어 표적을 명중시킬 확률이 떨어진다. 집중해서 쏘 화살일수록 명중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히 파악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 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이 때 자신이 가진

역량이 그 대학에 현실적으로 맞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대입 현황과 관련된 흥미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합격한 학생들의 환호와 불합격한 학생들의 씁쓸함이 엇갈리는 가운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뉴스가 알려졌다. 그리고 이는 다시금 현실을 냉정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버드대학이 발표한 비통한 뉴스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일요일에 또 한 명의 하버드 학부생이 보스톤의 한 빌딩 건물 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죽었다.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 다시 뉴저지 출신의 아시아 학생이었다. 하버드 커뮤니티는 다음 주에 캠퍼스로 입주하는 신입생들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행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만약에 이 전도유망했던 학생들이 몇 년 전에 하버드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지금 그들이 살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 보게 된다. 인생에는 대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우치게 된다. 산다는 것, 생명 자체가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이다.

Avoid the Summer Slide by enrolling at JEI.

Summer 2014

Avoid Summer Learning Loss
JEI Programs are aligned with **Common Core State Standards** to give students the advantage they need. Children can customize their summer classes by selecting subjects they need the most help in.

- JEI Math
- JEI English
- JEI Reading & Writing
- JEI Problem Solving Math
- JEI Korean / 재능한글

재능교육 JEI Learning Centers

FREE Enrollment from June 1-30

T. 781-365-0075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3 www.jeikids.com

"따뜻한 봄날의 시작을 헤어스타일 영이 책임지겠습니다"

남자 컷 25불 / 여자 컷 30불 / 파마 70불 부터
 디지털 130불 부터 / 케라틴 매직 220불 부터 시작 합니다.

경혁 압구정 김영남 미용실, 롯데호텔 마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픈 스텝
 뉴욕 Fox 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명

617.947.6840

25 church st, watertown MA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



오승준 (Albert Oh)

SD Academy 원장
SDAcademyOnline.com
617-505-1852, 510-387-0735
info@SDAcademyOnline.com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 의하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재학하고 있는 해외 주재 한국 학교들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7~8월 중에 (원서 접수 및 면접 등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지만 전형 방법은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하여 시행"한다고도 나와 있다. 즉, 각 대학교가 재외국민 전형에 지원 학생을 모집하고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도 입시 때 연세대가 특별전형의 지필고사를 폐지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만으로 지원학생을 평가했으며, 2013년 입시에서는 성균관대 또한 필기시험을 폐지하였다. 2015년에는 고려대와 한양대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방식을 크게 변경할 예정이다. 다만 바뀌는 선발 방식을 대학 측이 미리 공지

해야 할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전형 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기본을 다져놔야 입시 준비가 편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집 정원이나 지원하는 전공, 모집 단위(학과별로, 혹은 단과대학별로 모집)에 따라 지원 방식이 합격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준비는 필요하다.

게다가 작년(2013년) 입시부터 수시모집의 지원 횟수가 6회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대학 입시에서 관건이 되었다.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으로 지원하는 모든 전형 대상에 6회 제한이 있으며, 같은 대학이라도 복수의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각각 지원한 것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에 재외국민 특별전형과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복수지원을 하게 되면 수시모집에 2회 지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시 횟수가 제한됨에 따라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서 지원하는 유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몰리는 현상만 봐도 지원 학생들의 실질적인 희망 대학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한국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력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대학들이

IVY 말고 SKY로? (2)

<표 1> 서울 소재 28개 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 인원

	2012 년	2013 년	차이
전체 28개 대학	10,446 명	10,485 명	+ 39 명 (0.3%)
상위권 10개 대학	4,688 명	5,077 명	+ 409 명 (8.7%)

*상위권 대학: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어대, 건국대

재외국민 특례에서 지필고사의 비율을 줄이거나 없애고 학생이 제출하는 서류만으로 1차 평가를 마쳐버리는 전형 방식으로 바뀌면서 단순히 숫자로만 보여줄 수 있는 점수가 상대

별전형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은 수시지원에서 탈락한 학생들의 이력을 보면 확실히 드러난다.

(다음 칼럼에 계속)

<표 2> 재외국민 특별전형 수시 탈락 학생 이력

지원 대학	지원 학부	시험 성적 및 이력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	TOEFL 113, SAT 2130, SAT 2 Math 800, Literature 720, 수학 올림피아드 금상, 환경단체 인턴십 500시간, 학교신문 편집부, 학생회 임원 등
연세대	아시아 학부	TOEFL 119, SAT 2270, SAT 2 Math 800, AP 5 개 시험 모두 5점, Valedictorian(수석졸업), 각종 클럽 활동(경제, 축구, 수학), 농구 팀 State Championship 우승
건국대	정치학부	TOEFL 116, HSK 6급(중국어 최고등급), DELF B2(불어 최고등급), 기타 어학능력 성적, 동아리 활동 다수
이화여대	국제학부	TOEFL 118, 내신성적 만점(GPA 4.0/4.0), 교내 동아리 활동 활발 및 각종 우수상 상장 등

적으로 덜 중요하게 되었다. 내신이나 시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남다르게 내세울 수 있을만한 강점,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열정 등의 추가 요소가 더 비중 있게 평가된다는 뜻이다. 스펙만으로 상위권 대학 특

오승준 (Albert Oh)
Copyright© 2013.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승준 원장의 미국 유학 성공 가이드는 SD Academy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럼 내용이나 상담, 수업에 관한 문의는 전화(617-505-1852) 또는 이메일(info@sdcademyonline.com)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십니까?

ISAL 어학원을 소개합니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
비즈니스 영어회화

대학교 진학 준비(학사, 석사, 박사과정)

ISAL 에서 시작하세요.



INTERNATIONAL SCHOOL OF ADVANCED LEARNING

20 Linden Street 2nd Floor Allston, MA 02134 855-595-5885

www.isalusa.com info@isalusa.com

하나여행사 HANA TRAVEL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항공권 할인

• 관광 패키지

전문가와 함께 편안한 여행을 설계하세요.

617-713-HANA(4262)

Cell.phone: 617-818-2772

email: hanatravel@gmail.com

Toll Free 1-800-368-6977

정준기 원장 교육 컬럼

해밀튼 칼리지(Hamilton College)

정준기 원장 (보스톤 교육원)
Tel: 339-234-5255 / 5256 / 5257
Fax: 339-234-5258
Email: bostoneducation@hotmail.com
Web: bostonedu.org



해밀튼 칼리지는 1793년 해밀튼 오네이다 아카데미(Hamilton-Oneida Academy)란 이름으로 사무엘 키클랜드(Samuel Kirkland)에 의해 뉴욕주 클린턴(Clinton)지역에 설립된 대학이다. 이 대학은 콜롬비아 대학교, 유니언 칼리지 다음으로 뉴욕주에서 오래된 대학교이다. 처음 설립 당시 남자 학교로 시작하여 1812년 해밀튼 칼리지로 개명되었고, 1978년까지 해밀튼은 우수한 아카데미 프로그램, 명성, 그리고 탄탄한 재정까지 갖춘 우수한 남자 대학교였다. 남자 학교라는 단점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주변 여자대학인 키클랜드 칼리지(Kirkland College)와 1978년 합병되면서 모든 조건을 갖춘 남녀 공학의 교양학부 중심 대학(Liberal Arts College)으로 더욱 발전한 대학이다.

해밀튼이 일반인들과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진 가장 큰 이유는 암허스트(Amherst), 브라운(Brown), 스미스(Smith), 그린넬(Grinnell)등과 함께 학생들이 특정 제한없이 모든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전공에 대한 이수학점과 과목은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해밀튼을 졸업한 학생 대부분은 글을 잘 쓰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모든 학생들이 세계의 작문 집중 코스를 수강해야 하며, 학교 코스중 약 42%정도가 에세이, 리서치 등의 작문 중심의 코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해밀튼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학교이지만 윌리엄스(Williams), 암허스트(Amherst), 웨슬리언(Wesleyan), 스와스모(Swarthmore), 보도인(Bowdoin), 미들베리(Middlebury), 칼튼(Carlton)등과 함께 리버럴 아트 대학들 중의 아이비리그 대학이다. 즉 조그만 아이비리그 대학(Little Ivies)으로도 불리고 있다. 우수한 학교 아카데미 프로그램, 유명 동문들, 까다로운 입학조건, 소수 정예 프로그램, 교수의 직접 강의, 그리고 자유로운

전공 선택과 준비 등으로 리버럴 아트 칼리지의 큰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장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대학중 하나가 해밀튼 칼리지이다.

(아카데미 프로그램)

해밀튼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유연성, 심미적인 안목, 분석적인 안목, 창의력, 규율 실천, 문화적 다양성 이해, 의사소통과 표현, 그리고 도덕적인 시민 정신 함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1. 기초(Foundation) 코스: 작문, 수학, 세미나, 그리고 1학년 코스
2. 깊이 있는 교양 과목(Breadth in the Liberal Arts): 인문학, 수학, 외국어, 과학, 사회 과학, 예술
3. 전공 선택
4. 시니어 프로그램: 시니어 전공관련 리서치 논문 등의 코스로 짜여져 있다.

학생들이 전공할 수 있는 아카데미 분야들은 아프리카학, 아메리칸학, 고고학, 아트, 미술사, 아시아학, 천문학, 생화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중국어, 연극 영화, 고전, 방송학, 비교 문학, 컴퓨터학, 창작, 댄스, 경제학, 교육학, 영문학, 환경학, 불어, 인류학, 지구과학, 독문학, 행정학, 히스패닉 연구, 역사, 일본어, 법, 라틴아메리카학, 수학, 중세 연구, 음악, 신경과학, 철학, 심리학, 종교학, 사회학, 스페인어, 여성학, 세계 정치학등의 전공을 제공하고 있다. 전문직 준비프로그램으로는 경영, 교육, 엔지니어링, 법, 의과 대학원 준비과정 프로그램이 있다. 인기있는 전공으로는 경제학, 심리학, 수학, 역사, 영문학, 세계정치학, 생물학, 행정학 등이다.

해밀튼 학생들중 약60%이상이 적어도 한 학기 동안 학교밖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학교밖 프로그램으로는 중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등 전세계를 통해 약 100여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뉴욕시, 보스톤, 워싱턴 디시등에서도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리서치와 인턴십 등을 제공 하고 있다. 졸업이수 학점으로 교양 필수과목을 수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흥미있는 과목들을 수강하면서 본인이 관심있고 적성에 맞는 전공을 최대한 빨리 찾을수 있도록 아카데미 코스가 디자인 되어 있다.

(캠퍼스 라이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4년 동안 생활을 하기때문에 학교가 충분한 학생들 거주지를 확보하고 있다. 현재 기숙사, 하우스등이 총 27개가 있어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활동과 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학교 내에 7개의 식당과 카페테리아가 있어 학생들이 학교밖에서 식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있다. 물론 아름다운 캠퍼스와 안전한 주변환경이 학생들로 하여금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학생들이 다양한 클럽 활동으로 문화단체, 그리 클럽, 아트, 종교단체, 스포츠, 정치단체, 학생들 미디어, 봉사활동기관등에서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적어도 한두개의 클럽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는 클럽 활동 대부분은 학교에서 일정한 기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주변에 국한된 활동만을 하지않고 다양한 지역, 타학교와의 교류등도 매우 활성화가 되어있다.

학교 스포츠는 NCAA Div. 3에 소속된 학교로 학교의 주된 Varsity 팀 종목은 야구, 농구, 조정, 크로스컨트리, 미식 축구, 골프, 아이스 하키, 육상, 라크로스, 축구, 스쿼시, 수영, 테니스, 소프트볼, 필드 하키 등이 있다. 학교 Varsity팀이외에 많은 학생들이 클럽 스포츠 등에 가입하여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고 있다.

(유명 동문)

제임스 셔먼(전 미부통령), 엘리후 루트(노벨 평화상 수상), 존 드윈넬(캘리포니아 주립

대학 설립자), 카터 바코트(전 뉴욕 은행장), 데이비드 블러드(전 골드만 삭스 회장), 스테 파노 사도브(전 Saks Fifth Ave 백화점 회장), 윌리엄 브리스톨(브리스톨 마이어 회사 공동 설립자), 마크 랜돌프(Netflix 설립자), 폴 그린가드(노벨 의학상수상), 로버트 번스타(전 미국 우체국장), 댄 네(전 Linkedin 사장), 내트 파슨(아카데미상 수상)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유명인사를 배출한 학교이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이 학교 출신 동문들 중 유독 골드만 삭스의 최고위직 간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등록금및 재정보조)

2014-2015년도 등록금은 \$59,970로 기숙사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해밀튼에서 제공되는 재정보조 형태는 부모님의 재정 상황에 맞게 필요한 만큼 학교가 제공하는(Need Based Scholarship) 형태와 연방 펠 장학금(Federal Pell Grants)등이 있다. 지난해 약 40%의 학생들이 재정보조 수혜혜택을 평균 \$33,700정도씩 받았다. 외국인 학생들도 재정보조 수혜혜택을 받을수 있다.

(입학 절차및 전략)

지난해 입학허가된 학생들의 학교 성적은 상위 10%인 학생들이 83%였고, SAT평균 점수는 CR 670-750, Math 670-750, Writing 680-760였다. 입학률을 27%로 입학이 까다로운 학교중 하나이다. 현재 총 1,828명의 학생들이 188명 교수들의 지도를 받고 있다. 학생과 교수의 평균 비율은 약 9대1로 일반 사립 보딩학교의 학생과 선생님의 비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현재 여학생이 51% 비율로 남학생들보다 약간 많은 여학생들이 재학중에 있다.

입학 절차로는 조기지원인 ED 플랜 1(마감일 11/15)과 플랜 2 (마감일 1/1)가 있고, 정규 지원은 1/1이 마감일이다. 입학에 필요한 서류들은 공통원서와 원서료, 보조원서, 학교 성적, 추천서, SAT 1,2, TOEFL성적이 있으며 마감일 전까지 도착 해야한다.



2014년 여름방학은
청담 ReadWrite에 다양한
Summer Program과
함께 하세요!



● Summer Critical Reading & Writing (1학년~12학년)

설명문, 소설, 이슈토론 등 청담ReadWrite의 프로그램

● Summer Writing Workshops (3학년~12학년)

일주일씩 진행되는 라이팅 인텐시브 프로그램

● Tween&Teen Creative Writing (3~8학년, 9~12학년)

Short 스토리와시 (Poem)를 통해 라이팅테크닉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짜여 있는 프로그램

● Summer Days at ReadWrite (3학년~8학년)

리딩/라이팅수업과 여러가지 예체능 수업을 같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가, 축구, 미술, 영화메이킹 등)

● High school and College Prep Essay Writing (7학년~12학년)

하이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에세이라이팅프로그램

자세한 스케줄은 www.BostonReadWrite.com/schedule/을참조하세요.
무료상담은 이메일 Info@BostonReadWrite.com이나
전화 857-404-0170 로 연락주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겸손, 은유, 인내, 사랑, 용납,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찬양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유스 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7:00
청년모임 주일오후 12:30
속회모임 수 - 주일 속회별
중보모임 화, 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9:30, 금 오후 9:30

비전 교회
The peopl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atertown, MA 02472 Tel: 617.744.9557
www.gracevisionumc.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당목사 유경렬



미주한인계수교장모회

세빛교회

NEW LIGHT KOREAN CHURCH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주일영어예배 (EM):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유, 초, 중, 고):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6시 (월요일 제외)

담당목사 김대업
730 Main St. Waltham, MA 02451
781-652-0001 / NewLightKC.org

뉴햄프셔한인교회

New Hampshire Korean Christian Church

주일예배 • 오후 1시 30분
담당목사 • 장계은

12 Station Rd. Bedford, NH 03110 (395 루츠 & Hawthorne Dr. Bedford)
603-264-6799 • 603-264-6798 • www.newkcc.org



임마누엘 연합교회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새벽기도: 오전 6시 (월~금)
담당목사: 김 덕 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0 Forest Park Rd, Woburn, MA 01801
617-939-3903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성목요일 (4/17)
8pm 주의 만찬미사

성금요일 (4/18)
3pm 십자가의 길
8pm-수난예절

성토요일 (4/19)
9pm-부활 성야미사

부활절 (4/20)
3pm-부활대축일 낮미사 및
서례성사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85
office.k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주일학교: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당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781.894.3958 목사관: 617.969.5809



보스톤 남부지역 보스톤 새힘교회

주일예배 11:00 AM

617-622-5225
5 Cabot Pl, Stoughton, MA 02072
www.bostonrenewal.org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차
서비스

States Inspection

태양자동차

Repair & Body

고객님은 차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저희가 꼼꼼히 확인하고 점검하여 고객님의 꼭 맞는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에 관한 모든 것이 저희 태양자동차에 있습니다.

**(T) 781-391-6200
781-391-7700**

78 SWAN ST. MEDFORD MA, 02155
(F) 781-827-0867 EMAIL: SUNAUTOBODY@YAHOO.COM
WEBSITE: http://sunauto-boston.hanjin.com/



성경말씀을 통한 기쁨으로 사는

제실일안식일예수재림교 보스톤한인교회

담당목사: 송연호

안식일 학교: 토요일 오전 9:30
안식일 설교예배: 토요일 오전 11:00
중고등부 학생부: 토요일 오후 2: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일요일 오전 6:00
계재운전: 화요일 저녁 8:30 (스카이프)
영양교실: 화요일 오전 10:00

부설: 보스톤 제생원 센터 / 17년간 헌신들을 위해 매일 무료 집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주소: 4 Spring St. Stoneham, MA, 02180
전화: 781-279-3270 bkadventists@gmail.com
www.bkadventists.com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진에 기본이 되는 조리개와 셔터속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자.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빛의 양을 노출이라고 한다. 노출을 이해하는 것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카메라에서는 노출 즉,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리개와 셔터 속도이다.

조리개는 말 그대로 열거나 닫거나 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렌즈를 통하여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게 된다. 조리개를 많이 열면 빛이 많이 들어오고 닫으면 적게 들어오게 되는 간단한 원리이다. 이렇게 조리개를 열고 닫고 하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하게 되는데, 이를 F 번호(F number)라고 하며 1.4, 2.8, 5.6, 11, 16 등의 숫자로 나타낸다. 숫자의 값이 작을수록 조리개를 많이 열린 상태가 된다. 즉, 2.8은 11보다 조리개가 훨씬 많이 열린 상태가 되어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이다.

빛을 조절할 수 있는 두 번째 도구는 셔터 속도이다.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조리개를 닫아서 차단되면 더 이상 카메라로는 빛이 들어 오지 못하게 된다. 조리개를 얼마나 열어두는가에 따라서 빛의 양이 결정된다.

셔터는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열었다가 닫는 과정을 거친다. 만일 셔터가 빠른 속도로 열리고 닫히면 들어오는 빛의 양은 적을 것이며, 그 반대로 되면 상대적으로 많은 빛이 들어오게 된다. 셔터 속도는 1/30, 1/125, 1/1000, 1/4000 등과 같이 분수로 표시하며, 분수에서 분모가 클수록 빠르게 열고 닫힘을 의미한다. 즉, 셔터 속도가 1/30보다 1/125일 때 더 빨리 여닫음이 일어나며, 빛의 양이 적게 들어오게 된다. 여기까지가 어려우

면, 커피라도 한 잔 하며 쉬어가자.

기본적으로 사진을 만들기 위한 빛의 양은 이 두가지 즉,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조합에 의해서 결정된다. 카메라를 켜고 대상을 향해서 셔터를 반쯤 누른 채로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을 잘 읽어 보면,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의 밝기를 원하는데로 하기 위해서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원리와 방법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카메라에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이미 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촬영하는 사람은 이것을 토대로 하여 자신만의 의도를 가미하면 되는 것이다.

사진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빛이 카메라에 기록되는 것이다. 빛에는 감정이 있다. 따뜻함, 차가움, 부드러움, 투박함, 사랑스러움 등 피사체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우리가 찍는 사진은 이 빛을 통해 세상을 보여주게 되고, 사진으로서의 생명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력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선 다양한 빛의 경험을 쌓아야 한다.

사진을 배워 나가는 입장에서 몇 장의 사진을 주변에서 너무



Photograph by SoungDae Yang

잘 찍었다고 칭찬해 준다고 하여 우쭐대기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숙지하고 응용해보자. 사진은 때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는 자세로 임하자.

Crouser & Suh PLLC

크라우저 & 서 로펌

이민법/국제법 전문 미국 로펌 한인 변호사들의, 한인들을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



이소영
이민 변호사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인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기자 비자 (O-1, P-1)
- 취업이민 (NW, EB-1, EB-2, EB-3)
- 투자비자 (E-2) / 투자이민 (EB-5)
- 종교 비자 (R-1) / 비자 변경 및 연장
-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 재판 / 각종 이민 관련
- 비지니스, 민사 등 각종 소송 관련



조규성
민법/상법 변호사



양선영
이민 변호사



스티브 서
이민 변호사

Crouser & Suh PLLC

1111 Washington Street, Newton, MA 02465

Tel: 617.969.7979 / 617.877.3435

Fax: 617.969.4959 www.stevesuh.com / www.suhladyer.com

신영의 **세상 스케치**

44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기]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조카며느리와 시이모 사이에 흐르는 정...

한 달간의 바쁜 한국 방문(여행)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저녁에야 보스톤 집에 도착했다. 참으로 멀기도 하다. 한국의 Seoul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Detroit Wayne County Airport를 경유해 Boston Logan Airport까지 오는 거리를 지금 가만히 생각해도 참으로 멀다 싶다. 지구 반대편을 돌아오는 이 길은 언제나처럼 만남의 기쁨과 이별의 슬픔이 늘 공존하는 공간이다. 서로의 만남과 헤어짐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그 어떤 관계에 있던 간에 늘 헤어짐은 아쉽고 이별은 쓸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만날 기다림보다 앞선 쓸쓸함으로 늘 그렇다.

엣그제(3월 29일)는 한국의 막내 언니 아들인 친정조카의 결혼식이 있어 한국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래서 조카 녀석의 결혼식만 참석하고 오기에는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뭔가 조금은 아쉬운 듯싶어 그 일정에 맞춰 문학행사(시집과 수필집 출간과 출판기념식)와 특별강의(상담학과) 시간을 얻어 정신없이 보내고 왔다. 바쁜 일정에 몸은 많이 분주하고 바빴지만, 그 가운데 알차게 보낸 시간에 마음은 어쩌나 넉넉하고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 바쁜 일정 중

에도 주말에 산을 오르는 일을 놓칠세라 바빠 움직이며 원주의 남대봉과 흥천의 팔봉산 그리고 춘천의 오봉산을 오르고 왔다.

2014년 갑오년(甲午年) 말따해의 봄을 맞아 결혼식을 올린 조카 녀석은 서른 한 살의 돼지띠이고 조카며느리는 스물 일곱의 용띠이다. 아들이 없었던 친정집에서 언니들이 결혼하고 첫 손자를 보는 것은 친정엄마의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다. 막내 언니의 아들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외할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극진한 정성을 받고 자란 아이이다. 첫 아들이 낳아기도 하지만, 막내 형부가 친정 부모님 살아생전에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효도했던 사위다. 그래서 막내 형부의 친정부모님께 했던 남다른 효성에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펼쳐버릴 수가 없다.

이처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막내 언니와 막내 형부의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조카들에게까지 알게 모르게 흐르는가 싶다. 이 녀석은 훗날 키(181cm)에 리더십이 강한 편으로 지금은 육군 대위로 근무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계속 군에 있을 계획이란다. 그리고 조카며느리도 늘씬한 키(171cm)에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의 골퍼이며 친정어머니의 말씀으로 뉴질랜드에 몇 년을 골프를 위한 유학도 다녀온 유망주였다고 한다. 아직은 큰 대회에는 아니지만 작은 대회에 몇 번 나가 우승도 하고 활발한 활동 중에 시집보내는 것이 못내 아쉬운 마음이라고.

아마도 친정어머니의 마음은 그러리라 생각이 든다. 조카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내 나이보다 세 살이 더 많으시던데 우리 집 딸아이의 피를 따져보니 조카며느리가 우리 집 딸아이보다 한 살이 더 많은 것이다. 물론, 우리 집 딸아이는 음력으로 선달 생일이라 한 살을 거저 먹긴 했지만, 여하튼 딸아이 같은 조카며느리가 그저 귀엽고 예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시어머니인 막내 언니 뒤만 살살 쫓아다니는 모습이 남의 일만 같지 않은 것은 잠시 '내 딸'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이처럼 내 언니를 졸졸 따라다니는 조카며느리가 예쁘고 사랑스럽기 그지 없다.

이렇듯 조카며느리와 시이모 사이는 남모를 정이 흐른다는 생각을 한다. 시누이와 올케 사이는 뭔지 모를 미묘한 감정이 흐르기 마련이지만, 조카며느리와 시이모의 사이는 특별히

미묘한 감정이 오갈 필요가 있을까. 그저 내 조카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이면 좋고 내 언니에게 그리고 내 형부에게 좋은 며느리이면 최고의 조카며느리 감이 아닐까 싶다. 사랑스러운 눈이 아닌 흠을 잡으려고 가시 돋친 눈으로 사람의 부족함을 속속들이 들추려면 그 누군들 흠이 없을까마는 그저 그 모습으로 애쓰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한다.

프로골퍼 조카며느리를 곁에 두니 시이모에게 전하는 선물이 골프에 관한 것이 되어 더욱 즐겁고 행복하다. 조카며느리에게 미리 애길 전했었다. 언제나 비싼 선물은 사양한다고 말이다. 그것은 나 역시도 비싼 선물을 줄 수 없다는 마음을 미리 담아 전한 것이다. 선물이란 어떤 것일지라도 선물 자체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며 선물을 고를 때 그 사람의 담긴 마음이 우선인 까닭이다. 이렇듯 시어머니 사이에 두고 만난 인연인 조카며느리와 시이모 사이에 흐르는 정은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 흐르는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과는 사뭇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마음 추모 음악회

주최: 화음보스톤 챔버오케스트라
 후원: KACF, 보스톤한인교회

일시: 2014년 5월 3일(토) 5 PM
 장소: 보스톤한인교회(32 Harvard St, Brookline)

티켓: \$10/pp donation suggested
 연락처: soihnee@comcast.net 978-821-9434

보청기가 필요 하십니까?

Dr. 문소라 (Alysia Moon, Au.D CCC-A)

hear here.

- board-certified audiologists
- all major hearing aid brands
- 30-day trial period
- up to 4-year warranty

proud carrier of

WIDEX SIEMENS EarQ Westone
 oticon Starkey ReSound PHONAK
PEOPLE FIRST life is on

ASSISTIVE LISTENING DEVICES
 Now Available • Call for Details

TV EARS Listening Systems
 Amplified phones
 Vibrating Alarm Clocks
 Vibrating Watches

Moon Hearing Services
 23 Warren Avenue, Suite 130 • Woburn
 (located in the Choate Medical Center)
Call (781) 573-EARS (3277)

MOON HEARING SERVICES
 www.moonhearing.com



너희는 위로하라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한반도에 올해 봄이 성급히 왔다고 했다. 남해안에도 한창 봄이 농익어 가고 있을 게다. 현대, 진도 근방 해안은 회색하늘에 날씨도 그닥 평안치 않았던가. 그날 참담한 소식이 들려왔다. 울부짖음이 비명처럼, 바닷바람에 밀려 닳쳤던 게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인데, 수 많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 눈물겨운 봄이다. 피어나지 못한 꽃송이 피눈물되어

날려 흩어진다.

임진년, 4월 19일과 20일 난중일기 기록이다. '종일 비가 내렸다.' '맑지만 바람이 불었다.' 그날은 아무 특기할 만한 일이 없었던 터, 무심하고 짧게 충무공은 적었다. 몇 백년 지난 진도 앞바다는 그날처럼 비가 흩뿌렸던가. 그날은 맑아도 파도가 높았던가. 차라리 종일 비가 내렸고, 맑고 바람이 불었지

만 그저 그런 평범한 날이었다면. 그리고 아무일도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험거운 봄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일어났다. 입에 올리기에 참담하여 목이 잡긴다. 내 아이가 그 아이들 나이 또래다.

떠나간 아이들과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명복을 간절히 빈다. 비통해 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늘의 위로가 있음을 믿는다.

이 참사는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사고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끄러움에 앞서 참담한 일이고, 가슴아픈 일이다. 저미는 가슴은 열굴위 체면을 누른다는 말이다. 그날 한국 중앙 일간지 사설제목이다. 신문은 조중동인데, 어처구니없는 말투다. 다른 신문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다. '여객선 참사, 이려고도 선진국 되겠다는 말이 나오나.'

눈을 씻고 다시 봐도 승객의 안위安危를 걱정하는 말로 읽히지 않는다. 먼저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해야 했다. 더욱 구조 작업하는 이들을 격려해야 하고, 기다리는 가족을 위로해야 했다. 이단공단以短攻短이란 말이 있다. 채근담에 나오는 구절이다. '뭇 물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는 말이다. 언짢은 마음에 한마디 해야겠다. 요새 애들 말대로 되돌려 준다. '너나 잘하세요.'

교감선생님 집이 너무 무거웠던 모양이다. 견딜 힘도 버틸 재간도 없었나 싶다. 그가 남긴 말이 가슴아프다.

'시신을 찾지 못하는 녀석들과 함께 저승에서도 선생을 할까'

교감 선생님은 아이들을 끔찍히 사랑했고, 가르치고 기르는 일을 천직으로 알았을 게다. 스승답고 교사다웠음에 틀림없다. 남은 사모님과 아이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같이 할 것으로 믿는다. 삼가 명복을 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

영어를 배우세요!

전 세계 70 여개국 수백명의 학생들이 거쳐간 CSI 의 ESL 아카데미

인텐시브 영어 프로그램 &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

ESL 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인텐시브 영어와 아카데미 영어 프로그램에서는 문화와 언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프로젝트와 실험, 견학과 다양한 사회적 행사 참여를 통해 언어와 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생들이 미국에서 전문적, 학문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문화적 지식과 언어능력을 제공합니다.

ESL 아카데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 J-1 비자를 포함한 F-1 비자로 변경
- 다른 학교로 이전 도와줌
- 해외에서 학생비자 취득 안내
- 공식적인 여름방학
- 여러 일정의 수업
- 기초영어부터 어드밴스 아카데미 영어까지 다양한 레벨



COMPUTER
SYSTEMS
INSTITUTE



지금 전화주세요!

888-886-5740

esl.csinow.edu

Charlestown, MA • Worcester, MA
Chicago, IL • Skokie, IL • Lombard, IL

Computer Systems Institute is approved by the Division of Private Business and Vocational Schools of the Illinois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is authorized under federal law to enroll nonimmigrant alien students. Student visa and work authorization are issued to those who qualify.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graduation rates, the median debt of students who completed the programs, and other important information, visit our web site at; <http://www.csinow.edu/about-csi/consumer-information>. Program offering varies by campus. Tuition prices effective as of 3/17/14.

1년 학비 \$3,600!!



NAMU
 꿈을 키우는 부동산
 NaMuRealEstate.com

2001 Beacon Street, Ste. 101
 Boston, MA 02135
 info@NaMuRealEstate.com
617.858.NAMU (6268)

Commercial · Rental · Purchase · Sale · Residential · Rental · Purchase · Sale

NAMU REAL ESTATE은 모기지(mortgage)와
 부동산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이 설립한 컨설팅 기업입니다.
 고객님들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구매와
 렌트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와 금융관련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골치 아픈 부동산 매매를 믿고 맡겨 주십시오.
 고객님의 부동산 자산과 함께 성장하는
 나무 Real Estate이 되겠습니다.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주택 구매용자, 재융자,
 부채통합 용자
 Conventional Loan / FHA Loan
 / Portfolio Loan
 상업 구매용자,
 재융자
 Conventional Loan
 / SBA Loan



류 영욱
 Young Uk Lew
 NMLS#164694

Cell: 617.777.2929
 Fax: 617.284.6196
 ylew@indmortgage.com



Boutique broker for individualized residential & commercial loans

경험과 신뢰를 자랑하는 보스톤의 모기지 박사
 we arrange but do not make loans.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Licensed by the Division of Bank and Loan Agencies, NMLS #641207



미리 살펴보는
패츠 2014 시즌

작년에는 AFC 챔피언십에서 무릎을 꿇은 패트리어츠가 올해는 수퍼볼에 진출할 수 있을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정성일 기자 = 지난 23일 저녁 8시를 기해 2014년 NFL 정규시즌 스케줄이 발표되었다. 진정한 풋볼 팬이라면 발표된 경기 스케줄에 따라 벌써부터 올해 가을과 겨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은 보스턴 글로브가 패트리어츠의 2014 시즌 스케줄 발표 이후 분석한 주요 내용 5가지이다.

1. 브래디-매닝 볼

모두가 보길 원하는 풋볼계의 빅매치는 9주차에 이뤄진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는 덴버 브롱코스를 11월 2

일에 홈에서 맞이하게 된다.

이 시대 최고의 쿼터백이자 라이벌인 탐 브래디와 페이튼 매닝은 올해 16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있다. 이전까지의 상대 전적은 플레이오프 경기를 포함해 브래디가 10승 5패로 앞서고 있다. 가장 최근 경기는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 경기로, 당시에는 브롱코스가 26대 16으로 승리했다.

매닝이 브롱코스 유니폼을 입고 질레트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것은 올해가 세 번째다. 이전 두 경기에서는 모두 브롱코스가 패했다.

브롱코스와의 경기는 시즌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가는 길목에 치러지기 때문에 AFC시드와 플레이오프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2. 쉽지 않은 스케줄

올해 패트리어츠와 맞붙게 될 상대 팀들의 2013년 평균 승률은 51.6%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보면 패트리어츠는 2014년에 리그에서 10번째로 어려운 스케줄을 받은 셈이다.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올해 스케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트리어츠가 속한 AFC 동부지구와 인터 디비전 경기를 갖게 되는 AFC 서부지구는 작년에 3팀(브롱코스, 치프스, 차저스)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 외에도 패트리어츠는 작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패커스, 콜츠, 벵갈스를 상대하게 된다. 16번의 경기 동안 작년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과 6번 경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3. 시즌 후반 원정 경기

패트리어츠는 올해 시즌 첫 4주 동안 3번의 원정 경기가 있고, 시즌 마지막 5번의 경기 중 3번이 원정 경기다. 특히 시즌 막바지 원정 경기 중 2경기에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패커스와 차저스를 상대해야 한다.

패트리어츠는 홈경기에 특히 강한 팀이다. 작년에도 홈에서는 8승 무패를, 원정 경기에서 4승 4패를 기록했다. 시즌 막바지에 치러지는 원정 경기가 패트리어츠의 플레이오프 시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4. 바이 위크 시기

패트리어츠는 10주차에 한 주간 경기를 쉬는 바이 위크를 갖는다. 브롱코스와의 경기 후, 콜츠와의 경기 전이다.

만약 패트리어츠가 바이 위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작년 AFC 챔피언인 브롱코스와의 경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시기상으로는 본격적으로 시즌이 후반으로 돌입하기 전에 휴식기를 갖는 것이 나쁘지 않다.

5. 승-패 예상

상대팀들이 만만치는 않고, 오히려 작년보다 어려운 스케줄이지만 패트리어츠는 변함없이 지구 1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올해 드래프트 전이지만, 작년과 같은 12승 4패로 정규시즌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jsi@bostonkorea.com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32 최초의 무에서 '무예제보(武藝諸譜)'와 프랑스(1)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한명회와 권람의 계략으로 계유정란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후 단종을 폐위하고 왕좌에 오른 수양대군(세조, 여기서는 병제와 무제 중심으로만 본다)은 직접 '병법대지(兵法大旨)' 등의 병서와 병법을 편찬하면서 세종때 공고히 한 변방의 국경을 지키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고 세조때부터 제대로 갖추어지기 시작한 병제와 무제는 후일 성종대에 이르러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룩할 수 있었던 국리민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여러가지 여건과 요인에 의하여 임진왜란이란 미증유의 혼란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당시 조선의 군사들은 활쏘기 위주의 궁술과 화약 무기 등의 장사정 무기 중심으로 전술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당시나 지금이나 궁술에는 우리나라가 최고이다. 하지만 근접전투에서 사용하는 검술이나 창술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기에 임진왜란 초기에 왜적을 제압하지 못하고 패전한 한 원인으로 보았다. 그래서 선조임금이 1598년에 한교(韓嶠)에게

명하여 '무예제보'를 편찬하게 하였다. 무예제보는 한교가 명나라 장수 척계광(戚繼光 50)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참고로 하여 임진왜란때 원병으로 온 명나라 장병들에게 두루 질문하여 지은 무예서이다. 기효신서는 척계광이 자주 출몰하는 왜구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560년에 지은 무예서이다. 당시 명나라의 병서나 무예서들은 북방의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로 되어 있었기에 새로운 병서가 필요로 했다. 무예제보는 곤방, 등패, 낭선, 장창, 당과, 쌍수도 등의 근접전투에 필요한 여섯가지 무기의 운용법을 실고 있다. 여기서 다소 생소한 무술 용어에 대하여 간단히 잡고 넘어가 보자. '곤방(棍棒)'은 7척 길이의 창이다. 약 2m 10cm 정도의 창으로 한번 치고 한번 찔러서 상대를 제압하는 병기이다. 척계광에 의하면 이 창을 명나라 남방에서는 '곤'이라 하고 북방에서는 '백방(白棒)'이라고 하여 곤방이라 이름 지었다. 그리고 이 곤방은 여섯 종류의 가려봉(藜棒), 구봉(鉤棒), 조자방, 남아봉(狼牙棒), 저봉(柶棒), 철련협봉(鐵鍊夾棒) 등이다. '등패

藤牌'는 등나무로 만든 방패이다. 기효신서에는 명나라에서는 남방 심산에서 나는 성등으로 만들어 사용했으며 북방에서는 등나무가 없기에 버드나무에 가죽을 대어서 사용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나무에 손잡이는 뽕나무를 사용하였으며 정조시대의 등패의 크기는 직경이 3자7치(약 1m 12cm)로 앞면은 은신하기가 부족하여 중국식으로 더 넓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기록을 볼 때 임진왜란 당시에는 더 큰 방패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무예도보통지에 보면 "등패는 무게가 가볍고 간단하여 비와 습기를 두려워할 것이 없고 보병에게는 간편하다."라고 했으며 또한 모원의(茅元儀51)의 말을 빌려 "근세에 조선인이 방패로써 조총을 막는데, 타당한 방법이다."라는 기록을 보아 등패는 대단히 정교하고 단단하게 잘 만들어진 방어용 병기였음을 볼 수 있다. '낭선'은 죽장창(竹長槍)이다. 물론 철장선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장선을 썼다. 낭선은 길이가 1장5척(약 6.5m)이다. 겹가지가 반드시 9층이고, 10층이나 11층이면 더욱 오묘하다고

척계광이 말했다. '장창(長槍)'은 말 그대로 긴 창이다. 이 역시 길이가 1장5척이다. 재료는 주목(뽕뽕한 나무)이 제일 좋고 합목(合木)으로는 가볍고 작고 연한 것이 그 다음이다. '당과'는 창(창)의 일종인데 끝부분이 세갈퀴(Pitchfork)로 되어 있다. 길이는 보통 7척6촌(2m 25cm)이며 무게는 약 5근(3kg)이다. '쌍수도(雙手刀)'는 왜구가 중국을 침범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본명은 장도이며 두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쌍수도라 부르다. 길이가 6척5촌(약2m)의 긴 칼이다. 척계광의 기효신서에 "지금도 왜구들만이 전용으로 쓰고 있으니 막을 수가 없고, 오직 조총수만이 가히 견할 수 있다. 적이 멀리 있으면 총을 쏘고, 가까이 있으면 칼을 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이 쌍수도는 일본의 칼이다. 또한 모원의가 "장도는 왜놈의 체제다. 보병에게는 매우 날카로우나 옛날에는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무예도보통지에 의하면 정조시대에는 이 검제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만 그 이름만 전해 온다고 하였다.

50) 척계광(1528 - 1588) 기효신서(규장각 소장)를 저술하였으며 용행검이라 불리는 검법의 개조자이다. 자는 남당(南塘)이며 명나라 후기의 무신이다. 왜구들의 침략을 물리쳐 전공을 세운 이순신을 닮은 명나라의 용장이다. 충무공 이순신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충무공을 많이 존경하듯 중국인들에게는 송배의 대상이다.

51) 모원은의 무비지(武備志)의 저자이다. 무비지는 중국역대의 병서 2천여 권을 연구하여 정리한 240권에 이르는 방대한 병서이다. 명나라 송정제(명16대 황제, 재위 1628 - 1644) 때의 사람이며 생몰년이 미상이다.

Mu Han

TOTAL MARTIAL ARTS, INC.
무한무도회



“ To be the best of the best...”



ART SKILLS

World Taekwondo Federation
Korea Professional Taekwondo Federation
Korea Jing Wu Kung Fu Association
Korea Kyeok Too Ki Association
Korea Hapkido Association

LOCATIONS

Attleboro Mu Han Total Martial Arts
23 N.main St. Attleboro MA 02703
Ph) 508-226-0707, 508-226-0808

Franklin Mu Han Total Martial Arts
456 W.Central St. Franklin MA 02038
Ph)508-528-7772, Fax) 508-528-7797

Taunton Mu Han Total Martial Arts
147 Broadway Ave. Rte 138. Taunton MA 02780
Ph) 508-880-9200



TUSA Cup 2013

Facebook <https://www.facebook.com/MuHanMartialArts?rf=115870451838012>
U tube <https://www.youtube.com/user/MHtotalmartialarts>
Web site www.muhanmartialarts.com / www.franklinmartialart.com

Grand Master Kang

- 2011 – Pan-America Kukkiwon Grandmasters' Federation Executive Office
- 2010 – Korea Taekwondo Association(KTA)in USA, Secretary General
- 2007 – KTAin USA, Northeastern Regional Vice President
- 2006 – NEKTA (New England Korea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2011 – Korean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Referee Chairman
- 2009 – Mu Han Martial Arts Director of Discipline
- 2008 – Hanmdang, International Referee (Kukkiwon, World TKD Academy)
- 2008 – TKD Hanmadang, Ambassador in U.S.A.
- 2007 – Greater Massachusetts Stat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7 – N.E. TaeKwonDo Association, President
- 2006 – TaeKwonDo 7th Degree Black belt (Kukkiwon)
- 2005 - U.S.T.L.U.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4 – State of Georgia, Deputy Marshal
- 2004 – U.S.T.W New Hampshire State President
- 2003 – World Taekwondo Federation International Referee
- 2003 – USTU Referee of the Year
- 2002 – Featured Cover Story, Taekwondo Times Magazine
- 2001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Director, Boston
- 1999 – Korean Sports Council in USA, Taekwondo Team Head Coach, New Englan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Master Certified
- 1991 – Kyuk Too Ki (Korean kick boxing) International Referee
- 1993 –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Kyuk Too Ki Instructor's License
- 1990 – Director, Minister of Physical Education, Taekwondo Instructor's License
- 1989 – Master Instructor Certified by Kukkiwon



Master Oh

- 2002 Founded Mu Han Total Martial Arts
- 1999 Demonstrated in Canada and US
- 1998 1st International Team Pro Taekwondo in Korea
- 1997 Head Instructor in Pro Taekwondo Federation in Korea
- 1997 Taught Special Force 707 & Korea West Point
- 1992 1st Place -75kg Wu Shu Sparring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outhern First Division in Seoul, Korea
- 1st Place Wu Shu Spear Division in Seoul, Korea
- 8th Degree Black Belt in Korean Professional Taekwondo
- 6th Degree Black Belt in Jeong Mu Kung-Fu
- Korea Taekwondo Association in USA International Office Chairman

Master Lee

- 2009 Mu Han Martial Arts Instructor
- 20 Years teaching experienced
- Taekwondo 5th Degree Black Belt(Kukkiwon)
- Demonstration in Europe
- Teacher Certification in Korea
- Certification for Convoy

공식협력업체 :

보스톤 정관장
대한민국 흥삼의 힘!
문의 전화 781-238-0303

NEWSTAR Realty of Boston
Vice President Kwang O Kim / 김광오
Direct: 617-792-8615

보스톤 한국콜택시
Boston Hankuk Jonghap Service, LLC

- 공항 픽업/관광 ● 소형 이삿짐/카지노
- 미니밴/승용차 ● 쇼핑물(아울렛 물)

617.461.9270

한인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이민법 전문 변호사



스티브 서

비자 / 영주권
투자이민/취업이민
Lawcity7@gmail.com

617-877-3435

www.Stevesuh.com

Vol 10. No.17 April 25 2014

한인들과 함께하는 좋은선물 Bostonkorean@hotmail.com

발행처 :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775-8474

한진택배
HANJIN EXPRESS
보스톤 대리점

Tel 617.782.2424
175 Harvard Ave St14A, Allston, MA

우아한 헤어 살롱 Hair & Grace Salon “머리부터 메이크업까지 격조높고 세련되게”

업소탐방 237

Hair & Grace Salon

914 Concord Street
Framingham, MA 01701,
508-879-7777

Hair & Grace Salon

선 가든 힐링센터

지압 침 기치료

617.953.4988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김현 천 기자 = 최근 프래밍햄에 문을 연 Hair & Grace Salon(대표 그레이스 박)은 우아하고 세련된 헤어 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보스톤에서 좀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있지만, 한적하고 아늑해 오히려 기분전환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찾아가 아름다움을 가꾸기에 좋다.

보스톤에서 보기 드문 세련된 인테리어와 깔끔한 실내, 그리고 실력 있는 스태프들이 포진해 있는 이곳. 전문 헤어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네일 테크니션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 결혼식 신부나 파티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원스탑으로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다.

박 대표는 미국 미용실에서 스타일리스트로 10년간 일해온 베테랑. 미국인과 한국인 모두의 모발을 다뤄왔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다. 더구나 최신 스타일을 따라잡기 위해 헤어 쇼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파티에 어울리는 올림머리, 퍼머와 커트, 염색 모두 자신 있다니, 스타일을 중시하는 여성들에게는 희소식.

아담한 공간이지만, 구석구석을 심분 활용해 꾸민 실내는 그레이스 박 대표가 직접 인테리어를 지시한 것. “세련된 미적 감각”을 짐작할 수 있다.

살롱의 모든 제품은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골드웰’을 사용하고 있으며 디지털 퍼머기도 준비되어 있다.

헤어 체어는 4개, 샴푸대는 2개가 준비되어 있으며, 네일 대와 페디큐어 스파도 한 개 마련돼 있다.

살롱 한켠에 마련돼 있는 메이크업 룸은 앉아만 있어도 아름다워질 듯 그림처럼 꾸며져 있다. 신부화장이나 파티 화장, 일반 화장 모두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미나 캠펠스가 맡는다. 미나 캠펠스는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연출하기로 소문난 전문가다.

Hair & Grace Salon의 그레이스 박 대표는 “머리와 네일, 왁싱과 신부화장 모두 한 곳에서 조화롭게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며 “격조높고 세련된 분위기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자아이들을 위한 네일 파티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Hair & Grace Salon은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픈한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무이며, 넓직한 주차장도 마련돼 있다.

hckim@bostonkorea.com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 숨쉬는 한 가족 같은 사랑공동체에서 참 기쁨과 평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에배: 오후 12:30 담임목사: 최 형 략

보스톤 사랑의교회
www.boston1vechurch.com
1 Church St., Wakefield, MA 01880 (978)869-2596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톤코리아 업소탐방

신청 방법:
전화번호 617-254-4654
bostonkorean@hotmail.com

오리엔트 여행사
Orient Travel

781.665.0004

145 Main st Melrose, Ma 02176
theorienttravel@yahoo.com

CHOISIGNS & DESIGN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실 곳: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해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Seafood Distr. Sales Rep (Boston/region)

True World Foods supplies fresh and frozen seafood to sushi restaurants. Sushi experience, able to speak Asian language(s) preferred. Fax resume to 617-269-8342 or email through this ad. D.Stadelhofer <david-st@trueworldfoods.com>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Boston HTPC

데스크탑, 랩탑PC 수리
맥북, 아이맥 수리 및 윈도우설치
각종 데이터 복구 및 백업
인터넷 연결 및 공유기 설치
TEL 617-645-8885

테일러샵 매매 (Hampshire 지역)
웃수선 전문, 텍사도 렌트, 주인 은퇴
T. 413-320-6284

N 드랍 앤 테일러 샵 매매
처음 비즈니스를 도전하시는 분에게 적합하고 부담없는 장소 (MA)
모든 시설 브랜 뉴
풍부한 파킹랏, 저렴한 렌트
T. 978-761-0897

뉴튼 네일살롱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초보자.기술자.중간 기술자.환영”
“자격증 소지 하신분.또는 취득 가능 하신분”

{저희 가게는 뉴튼에 위치하고 있으며 네일 살롱중 가장 단골고객을 많이 보유하고있는 6년차 가게 입니다.
주 7일간 오픈하며 풀타임에 한해선 (휴가, 및 공휴일) 페이도해드립니다.(파트타임, 토 일 하실분 환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617-678-4780/ 617-559-9953

We Buy Car

We buy used cars for top money even though they have high mil-iages and problems. Please call Sam at 508-725-8888. Speak English.

T: 508-725-8888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N[매 매]
미용실 매매.
거의 2000sq.ft.에 달하는 넓은 실내.
4년동안 꾸준한 단골고객 확보로 안정적 수익.
안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운 지역.
내쉬빌 테네시 지역.
전화문의 주시면 실내 사진과 웹사이트 주소 알려 드리겠습니다.
T. 931-624-1855

N[매 매]
애틀란타,조지아 지역(좋은장소,좋은비지니스,좋은가격)
일본인이 운영하는 식품점입니다.
주인 은퇴관계로 식품점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그로서리를 인수하실 경우 1개월 동안 경영하는 모든 트레이닝 해드립니다.
T. 770-933-8808, 770-933-0848

주방 쿡/주방보조 구함

주방 쿡(중식경험자)/주방 보조(초보가능)
풀, 파트 타임 구합니다
(603)889.0055
(문의 3시 이후)

4989 부동산매매는 ———
뉴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헤어 악세사리 비즈니스 팝니다

위치: Pheasant Lane Mall in Nashua, NH 03060

- 헤어 악세사리 비즈니스 아주 낮은 가격으로 급하게 팝니다.
- 현재 남은 물건 값만 원가로 계산하고 가게를 드립니다.
- 디스플레이 용품과 레지스터를 포함한 모든 서플라이도 포함됩니다.
- 물건을 구매하는 루트와 정보도 모두 알려드립니다.
- 경험이 전혀 없어도 여자분 혼자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Tel: 603-888-0034
E-Mail: bestwish313@msn.com

N[매 매] 가게 - 1
그린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2개의 핸드폰 가게를 매매 합니다.
가게 1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트레이닝 가능.
매상 월 \$14000, 순수익 월 \$3000
랜트 월 \$1000
T. 864-505-5784 (Kim)

N[매 매]
- 뷰티 서플라이 가게 매매.
- 지난23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성공중인 비전있는 비즈니스.
- 많은 단골고객 확보 및 시장형성.
- 아주 좋은 로케이션.
- Sunday closed/평일7:30Pm closed.
- 약간의 오너 파이넌싱 가능.
T. 678-457-8054

N[매 매] 가게 - 2
가게 2. \$49,000.(인벤토리 포함)
Multi carrier (pageplus,tmobile,gosmart,h2o)에 Boost 딜러쉽 있습니다.
매상 월 \$13000, 순수익 월 \$3000
랜트 월 \$500
새주인에게 verizon,Sprint,metro,cricket의 LTE 전화기를 pageplus 로 플래싱하는 기술도 같이 전수해 드립니다.
T. 864-505-5784 (Kim)

N[매 매]
일식당 매매.
플로리다 지역.
더 상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참조.
www.rr4sale.com
T. 321-806-8922

서울설령탕 주류판매개시!

다가오는 봄,
서울설령탕의 파전,족발,보쌈,수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령탕

1245 Commonwealth Avenue, Allston
617-505-6771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세청	800-829-1040
남새문의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총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음/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면허	617-351-4500
펠러버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철학자협회	978-407-7554
국제결혼가정선교연합회	603-889-8201
뉴잉글랜드골프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운수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민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통보통협의회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617-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과학기술자협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무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연합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인양자(메인)	207-878-5652
6.25참전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복고등학교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산악회	774-270-1948
베냐민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람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978-314-9620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교동창회	
성균관대동창회	
영정중고등학교동창회	802-734-2521
이화여고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중앙대학교동창회	978-390-1552
강원도민회	603-622-8883
충청향우회	617-875-1801
한양대동문회	678-717-8800
	508-455-149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회보	781-933-8822
중앙일보(뉴욕)	718-361-7700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가톨릭	
구세군 물동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 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동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마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장로교회	401-351-2347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520
리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 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밀알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978-869-2596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산성교회	617-997-6165
보스톤 새생명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777-1800
보스톤서부장로교회	978-578-6987
보스톤 성결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령교회	781-275-8233
보스톤 소망교회	781-396-1004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안식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리안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978-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우리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401-739-8439
아름다운교회	617-869-815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52
에이여 베델교회	978-274-2369
엘리스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 시온교회	413-549-9200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프린티어 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978-394-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존은영교회	978-930-6613
지구촌방주교회	434-382-9450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하버드 한인교회	617-770-2755
하버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회	401-499-8258

간판

초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팡사이드 청문	617-999-9616
이늘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한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회계사	617-792-2355
한성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드슨꽃집	781-894-1843

금융/투자

인덱펀던트(뮤영욱)	617-777-2929
에이지 리	781-591-2722
이중수파이낸스	617-799-6158

방송/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울스트링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문소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재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길 동물병원	978-658-5282

떡/진치/반찬

형제떡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781-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킨케어	978-468-0039
성요한 교회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206-4560
뷰티룩 헤어살롱	857-284-3879
세티 미용실	781-676-7374
압구정동얼굴방	617-437-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안디옥 교회	978-534-3394
티케이헤어디자인	617-8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7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지혜헤어스타일	617-818-5596

물상 대여

해피물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영국	617-650-6666
한국디지털위성	617-567-1346

변호사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공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국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 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워드랜드/엑커맨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드광학(0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상담정신과	617-566-1055
심리상담	
양미아헤일리카운셀링	508-728-0832
인사정신상담소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덕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신건강전문	978-688-6999
주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정규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치과	978-655-1583
신영록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퍼럴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요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파스	617-871-1482
퀸지치과	617-471-2184
퍼스트치소스덴탈그룹	781-273-2233
프로스펙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고정치과	781-894-1127
아이리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현구치임플란트	781-894-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4년 4월 14일 ~ 4월 20일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 01 200% **악동뮤지션**
- 02 봄 사랑 벚꽃 말고 **HIGH4, 아이유**
- 03 야생화 **박효신**
- 04 Mr.Chu(On Stage) **Apink**
- 05 인연 **윤민수, 신용재**
- 06 티가 나봐 **15&**
- 07 Give Love **악동뮤지션**
- 08 견딜만해 **매드클라운**
- 09 씬 **소유**
- 10 얼음들 **악동뮤지션**

1위
KBS1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
28.3%



2위 MBC 월화특별기획 기황후 25.7%



3위 KBS2 주말연속극 참 좋은 시절 21.4%

- 4 KBS2 일일드라마(천상여자) 16.5%
- 5 KBS1 KBS9시뉴스 15.1%
- 6 KBS1 인간극장 13.5%
- 7 KBS1 KBS뉴스광장2부 11.7%
- 8 SBS 아침연속극(나만의당신) 11.6%
- 9 KBS1 러브인아시아 11.1%
- 10 KBS2 다큐3일 10.6%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24.99에 볼 수 있는 안TV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숫자 퍼즐 (Sudok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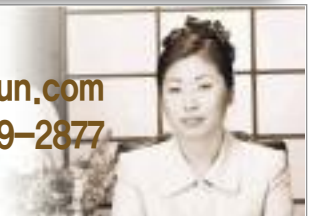
		3		9		4		
1		5			6		9	
		9	1					3
	9	2		5			7	
			2		3			
	6			1		2	3	
4					8	9		
	5		9			3		1
		6		4		8		

4월 27일 - 5월 3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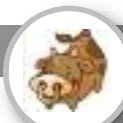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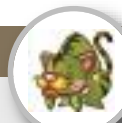
쥐띠 | 남보다 바쁘게 뛰어다녀야

● 운수: 사업상으로는 남보다 바쁘게 뛰어다녀야 할 운세입니다. 직업운에 있어서 승진이나 이동수가 있습니다. ● 금전: 생활의 활력과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금전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 애정: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돌아오는 시기입니다. 기다리던 사람과의 반가운 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7, 1일 길일, 29,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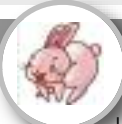
소띠 |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 운수: 소낙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마음의 비가 오락가락하니 하루에도 열두 번도 마음이 바뀌고 있습니다. ● 금전: 당분간은 큰 욕심은 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보낸다는 생각으로 현상유지를 하는데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애정: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연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욕망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8, 2일 길일, 30, 3일 주의.



범띠 | 연행의 일치성을 보여야

● 운수: 무엇보다도 솔직해야 하고 연행의 일치성을 보여야 좋은 신용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 금전: 원가 큰 것을 기대하게 되는 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의 규모를 더 크게 벌이면 안 됩니다. ● 애정: 양보하는 실, 실보다는 분위기나 느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커피 한잔을 마셔도 이왕이면 분위기가 있는 곳을 택하세요. 86, 74, 62, 50, 38년생은 29, 3일 길일, 28, 1일 주의.



토끼띠 | 해결의 실마리를

● 운수: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의지대로 밀고 나가세요. ● 금전: 말이 오고 가던 매매나 계약 등의 일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멀리 내다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 애정: 자신의 밝은 미소가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게 합니다. 미소가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30, 3일 길일, 29, 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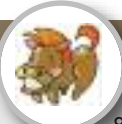
용띠 |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 운수: 미리부터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사고로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금전: 손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 뒤 손익계산을 철저히 하고 그 누구와도 돈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애정: 더 이상 사랑하게 되면 빠져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덜컥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1, 2일 길일, 27, 3일 주의.



뱀띠 | 더 힘껏 노력해야

● 운수: 방심하기 쉬운 주입니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옛 말처럼 더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 금전: 당장의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사 안일한 태도는 통하지 않는 때이니 태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애정: 보편적인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상대가 물러주는 홀로 하는 사랑은 좀처럼 대우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8, 2일 길일, 1, 3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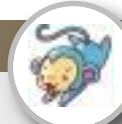
말띠 |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 운수: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이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전: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것이 많은 운세입니다. ● 애정: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독이 결국 터지게 되니 그동안 억지로 막아두었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0, 3일 길일, 29, 2일 주의.



양띠 |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 운수: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피해가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현상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지기 쉽고 기만마저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 애정: 미안한 생각이 들다가도 너무 몰아치면 미안한 생각이 사라지고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조심해야 합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2, 26일 길일, 21, 24일 주의.



원숭이띠 |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 운수: 새로운 시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욕망이 지나치지만 않으면 매사 순조롭고 무난한 주가 될 것입니다. ● 금전: 예상외의 수입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바쁘면서도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시기입니다. ● 애정: 결혼에 대한 찬스나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될 것이니 적극적으로 주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7, 2일 길일, 28, 1일 주의.



닭띠 |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 운수: 큰 고기는 넓은 물에서 살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용기를 내야 합니다. ● 금전: 적지 않은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오는 주입니다. 금전운이 좋아서 자금 회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 애정: 상대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해 보세요. 직설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이러한 표현이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7, 28일 길일, 29, 1일 주의.



개띠 |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 운수: 주위의 사소한 변화에도 민감해지는 시기입니다. 가끔 급격한 변화를 자제하고 안정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애정: 오해를 부르는 일들이 연달아서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94, 82, 70, 58, 46, 34년생은 29, 3일 길일, 27, 30일 주의.



돼지띠 |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끝내야

● 운수: 스스로의 감정조절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직장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회사를 그만 둘 우려가 있습니다. ● 금전: 원하는 것이 있어도 미리 낮춰서 바라면 큰 실망이 없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허망해지고 답답해집니다. ● 애정: 의미도 방향도 잃은 채로 보내기 쉬운 주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방향을 끝내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0, 3일 길일, 28, 1일 주의.



배우 류승룡 터지는 액션 '표적' 공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배우 류승룡의 두 번째 주연작 '표적' 이 드디어 공개됐다. 이미 '7번방의 선물' 로 첫 주연작이 천만을 훌쩍 넘기며 남다른 흥행 내공까지 선보였던 류승룡의 차기작이라 일찌감치 기대를 모았던 영화다. 호러 영화 '고지: 피의 중간고사' 로 뮤직비디오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당당히 떼어냈던 장 감독의 두 번째 연출작이기도 하다.

24일 오후 서울 CGV왕십리를 통해 베일을 벗은 '표적' 은 류승룡이라는 배우를 중심으로 이진욱, 유준상이 비중 있게 등장한다. 결국, 이 세 배우가 이 영화의 중심이다. 지난 2011년 개봉한 프랑스 영화 '포인트 블랭크' 를 리메이크 한 '표적' 은 살인범으로 몰린 여훈(류승룡)과 그 여훈을 치료하다가 쫓아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의사 태준(이진욱), 여기에 이들을 쫓는 두 형사가 이야기의 중심축이다. 반전 속에 여훈이 실은 특수부대 출신에 해외에서 용병으로 활동했다는 경력까지 더해지면서 마치 '아저씨' 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특히 여훈에게는 동생 성훈(진구), 태준에게는 임신한 아내 희주(조여정)까지 가족



들까지 등장한다. 한국적 정서에 총격신에 무술신까지 치고 박고 터지는 액션이 잘 버무러진데다 영상 역시 참감독답게 화려하고 오밀조밀하다. 이 영화에서 단연 돋보이는 주인공 류승룡의 감정부터 액션 소화는 압권이다. 극중 설정인 특수부대 출신다운 화려한 액션에 투박한 면모는 카리스마까지 느껴지게 만든다. 한편 배우 류승룡의 두 번째 주연작 '표적' 은 30일 개봉한다 s.yang@bostonkorea.com



작곡가 윤일상, 세월호 참사 희생자 애도 연주곡 '부디' 헌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작곡가 윤일상이 진도 여객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연주곡을 헌정했다. 윤일상은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희생자 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넋을 기리며 작은 연주곡을 헌정합니다. 부디 그곳에선 행복하기를 기도합니다" 라며 '부디' (세월호 희생자 분들을 위한 진혼곡)를 공개했다. 윤일상은 이 곡을 만든 배경에 대해 "작업을 하려 해도 자꾸만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매달렸을 절박한 순간이 떠올라 힘들었습니다" 라며 "부디 이 음악이 마지막 가는 길에 작은 동반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전했다. 윤일상이 직접 작곡 및 편곡하고 연주한 '부디' 는 4분30여 초짜리 곡으로 무겁고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담겨 있다.

s.yang@bostonkorea.com

배현진 아나운서, 기자전직 입장 밝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양성대 기자 = MBC가 배현진 아나운서의 기자 전직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24일 "배현진 아나운서가 MBC 취재기자 사내 공모로 전직하는 사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래 21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연기돼 정식 발령은 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보도매체는 MBC는 최근 사내공모를 통해 배현진 아나운서를 비롯한 일부 사원을 취재기자로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공식적인 인사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배현진 아나운서는 국회를 출입처로 배정받고 기자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yang@bostonkorea.com

천지보살

운명
사주
궁합
신점

전화예약 617-947-6799

전화로도 상담해드립니다

로컬, 장거리 이사 전문

시카고, 아틀란타, 버지니아
- Next Day Delivery (Express)
TX 지역
- Two day Delivery (Express)
L.A, 샌프란시스코 (CA지역)
- 5 Days Delivery (Express)



우리 익스프레스 617.699.6272

김원태 건축사

Reg. Architect (MA & NY) • NCARB • CDT • LEED AP • REALTOR®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독일에서 성장하고 교육 받음
무료 상담 및 견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We can Design Build Buy Sell your home!

otk212@gmail.com 617.620.8242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우 최대 한의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0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파수실적 / 10여 개국 대표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자회사



백영주
617-921-6979



Kwang O Kim
617-792-8615



Joanne Song
206-734-1407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송경빈
978-844-1508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최진민
617-877-0387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OT Kim
617-620-8242

단독주택 Single Family



\$675,0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732 sf.
살기 좋은 타운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이현주 401-935-3397



\$57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264 sf.
넓은 키친, 잘 관리된 정원
Nice house to live and work
이현주 401-935-3397



\$539,000
Reading, MA
3 Beds, 2 Baths, 2366 sf.
새로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Easy access to Highway
Jason Jeon 617-642-5670



\$1,089,900
Lexington, MA
4 Beds, 2.5 Baths
좋은 학군, 햇빛 좋은 남향집
Near I-95, H-mart
Anna Jung 617-780-1675

단독주택 Single Family



\$195,000
Weymouth, MA
3 Beds, 1 Baths, 1180 sf.
Beautiful ocean view
Jin Choi 617-877-0387



\$789,000
Newton, MA
5 Beds, 4.5 Baths, 2450 sf.
Spacious home for big family
Anna Jung 617-780-1675



\$559,000
Winchester, MA
4 Beds, 2 Baths, 1969 sf.
주택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에게
적합한 집
OT Kim 617-620-8242



\$899,900
Lexington, MA
4 Beds, 3 Baths, 2534 sf.
넓은 공간, 업데이트된 roof,
kitchen, bathrooms
OT Kim 617-620-8242

콘도 Condominium



\$319,900
Northborough, MA
2 Beds, 2 Baths, 1640 sf.
좋은 가격의 고급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850,000
Cambridge, MA
2 Beds, 2.5 Baths, 1374 sf.
깨끗하고 좋은 구조의 콘도
Joanne Song 617-797-3562



\$480,000
Quincy, MA
3 Beds, 2.5 Baths, 2448 sf.
조용하고 깨끗한 콘도
Jason Jeon 617-642-5670



\$789,000
Boston, MA
2 Beds, 2 Baths
Luxury elevator condo
Sue Rong Tsai 617-792-8842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Condo
Cambridge/ \$460,000
2 beds, 2 full baths
Greenline extension
Jason Jeon 617-642-5670

Condo
Cambridge/ \$349,000
Charming 1 bedroom condo
Close to Harvard Sq.
Joanne Song 206-734-1407

프랜차이즈
300개 점포 소유 회사
S.J Park 617-304-7001

아파트 건물 투자
아파트 건물
학생 렌트 건물
Cambridge, Boston
S. J Park 617-304-7001

Cleaner
\$220,000
Milford, 건물 가능
주차공간, 사무실
S.J Park 617-304-7001

Drop off Store
찾기 힘든 Drop off store
좋은 위치, 고정적인 손님
일년 매출 \$300K 이상
제이슨 전 617-642-5670

Full Plant Cleaner
저렴한 렌트,
안정적인 수입
넓은 파킹
제이슨 전 617-642-5670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미국 부동산 협회 (NAR) / 2014년 4월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
2014년 4월 25일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 100대 부동산 에이전트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제이슨 전
617-642-5670



헤이즐 승
617-895-7676



Shell Yu
781-526-2416

Drop off Store



\$65,000
Lincoln, MA
Drop shop and alteration
Great location by Lincoln place
Anna Jung 617-780-1675

Restaurant



\$250,000
Boston, MA
Boston downtown 중심에 위치
Great potential to grow
Jason Jeon 617-642-5670

Business Consulting



**레스토랑
셋업 컨설팅**
SJ Park 617-304-7001

Cart Business in Mall



\$80,000
Boston, MA
Downtown Mall 안에 위치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Drop off Store



\$50,000
Wakefield, MA
Wakefield center에 위치한
drop off store
Jin Choi 617-877-0387

Full Plant 세탁소



\$300,000
West Boylston, MA
고정 손님 많고 잘 운영되는
풀 플랜트 세탁소
낮은 운영비, 좋은 수입
Jason Jeon 617-642-5670

Drop off Store



\$60,000
Concord, MA
Located in a busy shopping-
mall close to Concord center
Jin Choi 617-877-0387

Clothing Store



\$100,000
Mattapan, MA
안정적인 수입
모든 inventory 포함
Jason Jeon 617-642-5670

Cafe



\$250,000
Boston, MA
Cafe w/ 프로즌 요거트,
버블 티, 아이스크림
Anna Jung 617-780-1675

Nail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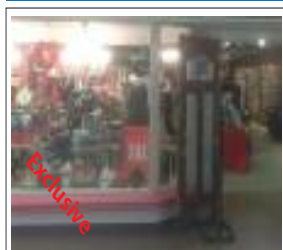
\$89,900
Boston, MA
Well established nail salon
located in a high traffic area
Hazel Seung 617-895-7676

Grocery



Ask agent for price info.
Allston, MA
1100 sf.
Hot Business Spot
Anna Jung 617-780-1675

Jewelry Business



\$99,999
Natick, MA
좋은 위치,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New owner를 위한 training 제공
Michael Yun 617-459-5985

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

Full Plant Cleaner

\$100,000
Weymouth, MA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
Jason Jeon 617-642-5670

Convenience Store

\$120,000
Worcester downtown
Great business potential
Won T. Ra 617-642-3156

E-2 투자 이민

E-2 투자 이민
확실한 비즈니스
SJ Park 617-304-7001

Full Plant Cleaner

\$200,000
Middleton, MA
Middleton mall 내 위치
Jason Jeon 617-642-5670

커머셜

커머셜 건물 투자
SJ Park 617-304-7001

비즈니스 빈자리

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비즈니스 빈자리
SJ Park 617-304-7001

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



나원태
617-642-3156



Steve Yoo
617-386-3451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칼럼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WisePrep 소피아선생님 (617-600-4777, us.herstory@gmail.com)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AP 준비하기 (5) 어떤 의미에서는 혁명적이었던... 인민주의, 혁신주의, 뉴딜, 그리고 위대한 사회 -3

(지난 주에 이어서) 뉴딜과 관련해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은 다양하므로 비교적 상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외어 두어야 한다. 객관식 문항의 경우 테네시강 유역 개발사업 TVA, 와그너법 Wagner Act, 농업 진흥법 AAA, 대법원과과의 갈등 Court Packing 등이 특히 자주 출제되고 있다. DBQ 와 FRQ 에세이의 경우에는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뉴딜이 얼마나 대공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지, (How Successful were the programs of the New Deal in solving the problems of the Great Depression? Assess with respect to Relief, Recovery, and Reform - 2002년 FRQ, Form B) 이라든가, 뉴딜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뉴딜은 미국 정부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묻는 문제 ("Analyze the responses of Franklin D. Roosevelt's administration to the problems of the Great Depression. How effective were these responses? How did they change the role of the federal government? - 2003년 DBQ)를 물었다.

뉴딜이 정부의 성격을 바꾸어갔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으로 보자면 관료주의의 비대화, 부처간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자원의 낭비를 지적할 수 있고, 긍정적으로는 정부의 권한과 역할, 민간-경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견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뉴딜을 통해 바뀌어진 정부의 철학은 트루먼 대통령의 Fair Deal, 린든 존슨 대통령의 Great Society 을 통해서도 이어진다.

여기서 잠깐. 뉴딜에 대한 비판은 다양하지만 아마 가장 정확하면서도 냉소적인 비판은 정작 대공황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뉴딜 덕분이 아니라 세계 제 2차 대전 덕분이라는 지적일게다

. 2차 대전은 미국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회복과 변영, 국제 사회에서의 정치-외교적인 권력, 심지어 과학-기술상의 놀라운 발전에 이르는 '축복' 을 안겼다. 1920년대 이후 처음으로 소비가 미덕이 되었다. 그리하여 1950년대 미국은 "풍요로운 미국" (Affluent Society), 소비주의 (Consumerism), 교외화 (Suburbanization), 획일성 (Conformity) 을 통해 이해 가능해지기도 한다. (참고로 1950년대를 이해할 수 있는 또다른 키워드로 적색 공포 (Red Complex)와 냉전 (Cold War) 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풍요로운 미국은 모두를 위해 풍요로운 소비사회였을까? 당연히 그럴 턱이 없다. 가령 사회주의 작가인 마이클 해링턴 (Michael Harrington)이 The Other America를 통해 설교하려했다시피, 당시 미국인들은 중산층과 상류층을 비추는 '풍요, 번영, 개발, 소비' 의 그늘에 존재하는 도시의 빈민층, 그리고 낙후된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에 대해 거의 무지하거나 무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인구의 1/5가량, 흑인 인구의 40% 가량은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있었다. 특히 2차 대전후 흑인들의 민권에 대한 의식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데 반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혹은 법적 권리는 미약하기 그지 없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로 사망한 후 대권을 넘겨받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진했던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는 바로 그 풍요로운 미국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사회적, 경제적 격차, 그로 인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문제는 윤리적으로 온당치 못할 뿐더러, 장기적으로 미국 사회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위대한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건 린든 존슨은 소득세, 사회보장제, 민권

법 등을 비판했던 (현대 보수주의의 아버지)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를 상대로 1964년 선거에서 486대 52로 압승을 했다. 다음 에세이 지문은 바로 린든 존슨 행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다.

In what ways did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Lyndon B. Johnson respond to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of the United States? (2007년 DBQ, Form B)

Great Society 의 핵심은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고리를 끊기 위한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 한마디로 압축될 수 있다. 빈곤과의 전쟁은 신설된 평등 기회국 (Office of Equal Opportunity)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아메리칸 원주민, 아팔라치안 산맥 지역의 거주민등을 포함한 마이너리티들에게도 고용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조기 유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소득층 거주 지역 학군을 지원하기 위한 Elementary & Secondary School Act 등도 시행되었다. 알려져있다시피 메디케어와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 보험을 구매하지 못하는 빈곤층과 고령층의 의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한 것도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1964년과 65년 통과한 민권법도 위대한 사회의 한 축이 되었다.

위대한 사회라는 실험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뉴딜보다도 급진적으로 미국사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한계도 분명했다. 미국이 빈곤과의 전쟁 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게되면서 위대한 사회를 위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지 못했던 것.

아이패드 미니(iPad Mini)를 무료로 장만할 기회!

보스톤코리아 아이 리포터(i Reporter) 모집



보스톤코리아가 대학생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 리포터를 모집합니다.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하게 보스톤코리아닷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대상: 대학 재학 이상
- 모집인원: 5명
- 주요업무: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한달에 3건 이상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
- 혜택:
 -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패드 미니를 지급
 - 2달 이후부터는 매달 전체 기사중 2건의 기사를 채택 소정의 고료 지급
 - 1년 업무 수행 후 아이패드 미니 본인 소유 가능
 - 보스톤코리아 닷컴 이용시 각종 혜택

지원방법: 간단한 자기소개와 학교 및 전공 연락처를 적어서 editor@bostonkorea.com으로 보내주세요.

문의: 617-792-6876

“매주 2만여명의 독자를 직접 찾아갑니다”



보스톤코리아 이메일 발송 서비스

-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보기 전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어 보스톤 코리아가 매주 신문 발행과 함께 이메일로 2만여 회원들에게 인터넷 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주 새로운 소식을 전세계 어디에서나 웹사이트에서 또는 지면보기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소식, 깔끔한 디자인 새로운 소식을 깔끔한 디자인으로 전해드립니다. 컴퓨터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에서도 저희 보스톤코리아를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스토티안 2014도 볼 수 있어 보스톤 및 미주 생활 가이드로 교육에서 의료 그리고 각종 생활정보를 eBook 또는 보스톤코리아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이메일 주소로 신청하세요!

픽업 장소가 마땅치 않아 보스톤코리아를 보지 못하는 분들은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이메일 보기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오바마케어 가입이 안되었다면?

보스턴 봉사회 제공

오바마케어 가입기간이 지난 3월 31일로 마감되었다. 전국적으로 총 8백만이 가입하여 정부는 성공적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가입 사이트의 난조 등 여러 이유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떻게 해야하나?

1.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일년 중 아무때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 보험은 ConnectorCare(오바마케어로 신설된 준 매스헬스), 매스헬스, 아동건강보험(CMS) 등이다.

또한 특별한 개인적 신상의 변경이 있으면 오바마케어에 언제나 가입할 수 있다. 신상변경은 결혼과 출산을 포함한다. 또한 갖고 있던 보험을 잃게 되는 경우 즉, 퇴직 혹은 해고, 이혼, 배우자 사망 등이다. ConnectorCare 가입 자격은 가구당 소득이 극빈자 소득액의 138% 미만이다. 따라서 만약 가입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미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으면 새로 가입신청을 하지 말고 안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가입신청 상황을 알아 보려면 800-841-2900 으로 전화하면 된다.(접속이 아직 어렵다.)

3. 가입신청을 하여, "Temporary Coverage (임시가입)" 통보 편지를 받았다면, 치료와 처방을 매스헬스에 가입한 의사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전화 800-841-2900 에 전화하

면 매스헬스에 가입된 의사, 병원을 알 수 있다. 혹은 Temporary Coverage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으면 위 1번에 해당돼, 60일 이내에 새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4. 현재 커먼웰스케어는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따라서 커먼웰스케어에 보험료를 내는 한 혜택이 계속된다. 커먼웰스 보험을 갖고 있으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신청을 하였는데 답신을 못 받았으면 기다리고, 아직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 커먼웰스 가입자에게는 6월 1일 까지 앞으로 해야 할 것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낼 것이다.

5. 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내년도 가입기간까지 기다려야 한다. 2015년 1월 1일 부터 유효한 오바마케어 가입신청기간은 2014년 11월 15일 부터 2015년 2월 15일 까지이다.

6. 가입신청을 돕는 기관은 정부가 인가한 Navigator 나 Certified Application Counselors(CAC) 들이다. 각 지역의 큰 병원은 대부분 Navigator와 CAC로 지정되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지원센터 (Massachusetts Health Connector), 133 Portland Street, Boston, MA 02114, 혹은 146 Main Street, Worcester, MA 01608 에 가서 직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지 근처의 CAC주소를 알고자 하면 봉사회에 전화(598-740-9188) 하기 바란다.

세월호 침몰 사태를 바라보며

홍진섭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 15기 회장

을씨스런 날씨만큼 뉴스는 계속해서 참담한 소식뿐이다. 구조되지 못한 300여 명의 생사를 알 수 없고, 생명을 걸고 구조에 나서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안위마저 걱정스럽다.

하지만 여기에 편승하여 좌우파로 갈려 호도하고 매도하며 떠들어대는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촌각이 급한 구조대원들이나 부모 형제들. 그리고 슬픈 비보를 접하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쓸데없이 아무렇게나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은 정말 자제를 했으면 한다.

또한 기회다 싶어 현 정부를 질타하는 사람들..이건 정말 아니다. 지금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서로 위로하고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다. 미국이나 서방 세계를 보더라도 사고가 터지면 일단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어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사태를 수습하는데 힘을 쏟는다.

9.11 사태만 보더라도 그렇다. 부시가 죽일 놈이 되었나? 국민들이 국가가 사전에 탐지 못했다고 들고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어 보았는가?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전세계에 미국의 힘을 다시 한번 과시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는가!

부시가 뉴욕 맨하탄 무역센터 잔해더미 앞에서 소방관과 관계자, 가족들을 위로하며 등장했을 때 모든 국민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재건에 힘을 모으자며 포옹하고 손을 잡는 것이 어찌해서 우리국민에게는 낯설게 느껴져야만 하는 것일까.

총리에게 물병이 날아가고 대통령에게 야유를 쏟아내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심정을 그 어느 누가 이들보다 더 아플 수가 있으니까! 지금 사태에는 여야가 없고, 좌우가 있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모두 합심하여 이 처참한 사태를 우리 서로 위로하며 슬기롭게 극복해 내야 할 것이다.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모든 국민의 힘을 모아 사태 수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데 중지를 모아야 한다.

권지영생장로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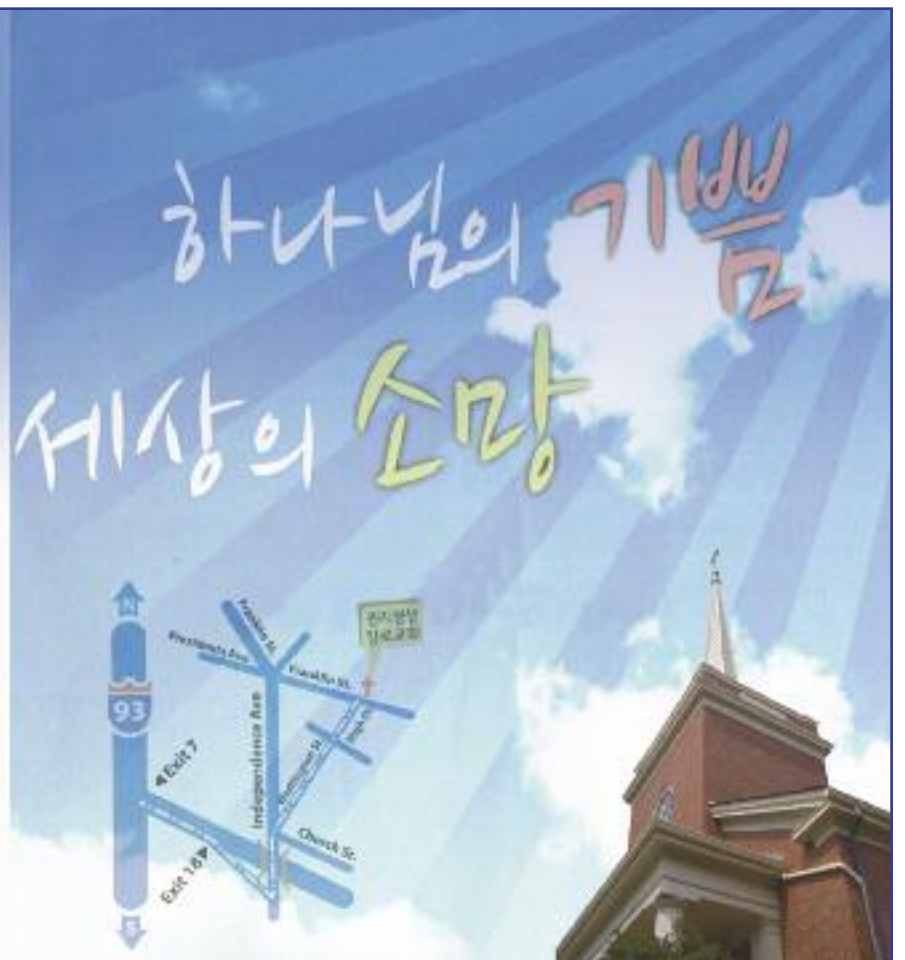
권지영 목사 약력

전 신약부서 한인 장로교회 개척/담임목사
전 일서 장로교회 담임목사
전 그렌스보로 리폼장로교회 담임
전 중국/대한 신교서
현 권지영생장로교회 담임

합력주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교민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권지영생장로교회에서는
미국장로교 보스턴 노회 주관으로
정재홍 목사님의 제 6대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일시: 2014년 5월 4일 (주일) 오후 4시
장소: 권지영생장로교회 본당
270 Franklin St, Quincy, MA, 02169
전화: 617-770-2755
www.quincychurch.org

권지영생장로교회 당회원 및 교우 일동



보스톤코리아

1박 2일

보스톤 여행후기 공모

보스톤에서 이곳은 꼭 가봐야 할 IT PLACE 를 아시나요?
어떻게 하면 보스톤을 후회없이 여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보스톤의 소중한 추억을 다른 사람과 나누세요.

당일치기 혹은 1박2일 동안 보스톤을 여행할 수 있는 완벽한 여행코스를 사진등과 함께 소개해 주세요. 또한 본인만 알고 있는 보스톤의 숨겨진 여행장소를 알려주세요.

재치 있고 알찬 여행후기를 보스톤코리아 지면 및 웹사이트 여행면에 소개합니다.

가장 재미있고 유익한 후기를 작성하신 5분을 선별해서, 푸짐한 경품도 드립니다.

MS word로 작성하신후,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마감일 : 2014년 4월 20일

(마감 당일까지의 이메일 접수, 혹은 우편소인이 찍힌 제출물에 한함)

1등(1명) : iPad mini retina 16GB

2등(1명) : Top of The Hub \$100 gift card

3등(3명) : \$50 Amazon gift card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각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부(復)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復活)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Jesus said to her(Martha),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and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s Do you believe this?” - 요한복음 11장 25,26절.

한국의 세월호(인천-제주 여객선) 침몰사건은 24일 현재 인제(人災)로 결론이 기운다.

탑승 476명 중 구조 174명, 사망 180명, 실종 122명(사건 발생 10일 현재), 이 사건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71%에서 며칠 사이에 56.5%로 급락하는가 하면,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주장으로 영혼구원을 받기 위해 투자를 유도하는 유병연 대주주의 활동도 눈길을 끌었다. 검찰은 자금 추적에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 영혼이 돈으로 구원이 연결되면 지난 주에 기념된 예수님 부활과는 끊어진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모두 부활하기를 빌며...

復: ①再也 재야: 다시 부, ②反也 반야: 돌아 올 복, 해서 두 가지로 받음된다.

再=兩也 양야: 두번 재=①門:遠界 원계: 멀경과 ②王:君也 군야: 임금 왕 두 글자가 겹쳐 있어 “멀리 가는 임금” 이라는 뜻을 지닌다. 멀다는 뜻이 동서남북이 있는 땅위를 말하지 않는다. 아무런 가시적인 한계가 없는 하늘나라를 일컬어 측량할 수 없는 ‘원계’ 란다.

쉽게 말해서 부활(復活)이란 ‘하늘나라 사람으로 재생(再生), 곧 ‘다시 태어난다’ 는 뜻이다.

再生을 예수님은 중생(重生)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니고데모:Nicodemus)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重生)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 요한복음 3장3절.

이 ‘중생 즉 거듭나야 한다’ 는 예수님 말씀에 유대인 관원(공무원)인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 사람이 늙으면... 두번째 모태에 들어 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은 기이히 여기지 말라”: Jesus answe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Flesh gives birth to flesh, but the Spirit gives birth to spirit. You should not be surprised at my saying.” - 요한복음 3:5-7절.

사람이 “물과 성령” 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은 곧 예수님 자신을 증명하신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요한복음 4장14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保惠師)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성령님)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성령님)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am in you, - 요한복음 14장16-20절.

그러므로 復活의 근원은 하나님과 그분의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상징적으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성경은 증언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生靈)이 된지라: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창세기 2장 7절). 이 하나님의 생기로 인간은 영생(永生)을 누릴 수 있었는데 “여자(하와:Eve)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아담:Adam)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食物)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6,19절).

이에 예수님이 인간이 죽은 후에 부활을 통해 영생(永生)하는 길을 다시 잇는 작업에 성공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Resurrected Jesus said,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I am sending you.” And with that He breathed on them(disciples) and said, “Receive the Holy Spirit. If you forgive anyone his sins, they are forgiven: if you do not forgive them, they are not forgive them.”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에 ‘불어 넣으신 숨결’ 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어 넣으신 성령님’ .

이 두 분의 숨결이 우리들의 생명과 부활 또는 영생(永生)과 직결 되어서다.

영생을 향한 부활의 전제(前提)는 ‘사랑(The Love)’ 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

일은 사랑이라: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바울(Paul)사도는 믿음과 사랑 사이에 소망(所望)을 넣어 예수님의 절대적 사랑을 성취하는데 3단계를 구분했으나 베드로(Peter)사도는 믿음에서 사랑을 열매 맺는데 8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믿음(Faith)-덕(德: Goodness)-지식(Knowledge)-절 제 (Self-Control)-인 내(Perseverance)-경건(Godliness)-형제우애(Brotherly-Kindness)-사랑(Love).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The second is thi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ere is no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이 두 사랑보다 큰 계명은 없다고 예수님이 잘라 말씀하셨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 하라는 것은 내게서는 주는 것, 곧 마이너스(-)이고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은 “부활과 영생” 을 키우므로 플러스이다. 하여 사랑은 “十” 를 표한다. 復活(부활)의 상징인 십(십자가)의 결산이 사랑의 표상이다. 자신을 십에 못 박는 군인들을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赦)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 누가복음 23장34절. 부활을 꿈꾸는 사람은, 아니 하늘나라永生을 꿈꾼다면 내게 손해를 안겨 준 사람들을 얼마나 용서해줬는지를 계산해 봐야 사랑이 부활을 그려 낼 텐데...



행복한 미소가 그리우십니까?
1st 초이스가 고객님의 미소를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모든 진료를 편리하게 한곳에서!

- *치아교정
- *소아치과
- *사랑니발치
- *치아미백
- *임플란트수술
- *악관절(TMJ)
- *보철/비니어
- *수면진정마취
- *신경치료
- *3DX-Ray(CT 스캔)

Special!



치아교정 무통 상담

(2013-10-14까지)

Dr. Jeong Sook Lee (장영숙 선생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DDS/Ph.D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DMD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Practice limited to prosthodontics



Dr. Michael Kong (강철문 선생님)
University of Pennsylvania,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endodontics



Dr. Samuel Lee (이승민 선생님)
UCLA School of Dentistry, DDS
Harvard Dental Resident
Practice limited to perio, implant, & ortho





DENTAL

1st.CHOICE DENTAL

한국인 직원을 찾아주세요

781.273.2233

www.1cdental.com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H

마트에서
5분 거리



DENTAL IMPLANT CENTER
FIRST CHOICE DENTAL GROUP
11 Cambridge St. Burlington, MA 01803

세월호 참사... 늘어나는 사망자, 통곡의 진도·안산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8일째 인 지난 23일 오후 2구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돼 사망자 수가 모두 159명으로 늘었다. 실종자는 143명이다. 사고 발생 당시 선장과 선원들의 무책임한 대응은 물론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임시 합동분향소에 조문의 발길이 이어지고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지만, 실종자 수색과 사망자 시신 수습 그리고 2차 피해 방지 작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슬픔에 빠진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다.

과적운항이 사고 초래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16일 사고 당시 적재 과다로 결국 사고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해양수산부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같은 초과적재는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인천-제주를 운항하던 운항 초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3일 세월호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와 조기수 이모(55)·박모(58)씨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기수는 기관사를 보좌하며 안전 점검, 보수, 정비 작업을 시행한다. 이들은 승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같은 혐의로 선장 이준석(69)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고 돌아간 뒤 모텔에서 자살을 기도한 1등 기관사 손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사과·내각 총사퇴 검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집권 2년차 박근혜 정부가 최대 위기를 맞음에 따라 사태 수습 방안을 두고 청와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실종자 구조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 후에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수습 대책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함께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중하위 공무원 몇 명에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대국민 사과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함께 고위 공무원들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더불어 선장의 행태와 선박 관리 부실 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잘못된 관행과 책임의

식 실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팽목항에 간이 영안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간이영안실을 설치하고 희생자 가족들과 장례절차 등을 합의하는 등 후속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3일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시신이 대거 인양될 경우를 대비해 이날부터 팽목항에 간이영안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이곳에서의 검안·검시를 위해 검사 2명과 검안의사 11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사고대책본부는 팽목항 임시영안실에서 시신 검안을 한 뒤 희생자별로 안산으로 이동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영안실에서 가족장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신은 경기 안산 와동 실내체육관에 합동으로 안치하기로 합의했고, 임시분향소는 안산 올림픽기념관에 설치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조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산화랑유원지에 설치할 예정인 공식분향소는 오는 29일부터 조문이 가능하다.

경찰, 허위사실 유포 엄중 단속

세월호 침몰사건 실종자 구조와 관련, 가족뿐 아니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경찰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목소리들에 대해 '악성 유언비어',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23일 MBN과 인터뷰에서 일부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민간잠수사 흥가혜씨를 검거한 데 이어 구속까지 시켰다. 이뿐 아니라 생존자가 구조요청을 한 것으로 한때 들었던 카카오톡 등 SNS 유포자와(김아무개씨), 잠수부를 사칭해 돈을 뜯어낸 이를 검거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다수의 시체가 확인됐으나 현장 책임자가 이를 은폐하고 현장 수습을 방해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김아무개씨 등도 검거됐다.

문제는 경찰이 합리적 의심과 상식적인 비판의 목소리까지 모두 허위사실로 재단하고 내사의 대상으로 삼거나 위법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점이다.

사실상 정부발표를 제외한 모든 의혹과 의문, 비판을 허위사실이자 내사 또는 수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안산 단원구 올림픽기념관에 마련된 단원고 희생자들의 임시합동분향소에서 시민들이 헌화하며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안산시, 노란리본 물결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도 안산시내 곳곳에는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시민들의 쪽지글과 '노란리본'이 물결을 이루고 있다.

임시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단원고, 지난 24일 2학년 교실 복도에는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기도하는 색색의 쪽지글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1. 돌아오기 2. 연락하기 3. 악착같이 버텨주기 4. 웃는 얼굴 보여주기 5. 단원고 원.상.복.귀 6. 선생님&학생 웃으면서 오기 7. 오면 꼭 안아주기 8. 다치지 말기. 보고싶어요 기다릴게요 꼭 와요 사랑해요."

'단원고의 기적'이란 제목의 8가지 행동수칙에는 실종자를 걱정하는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묻어났다.

학교뿐 아니라 안산시내 곳곳에 내걸린 쪽지글과 노란리본으로 하나된 기도는 단원고 학생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학생과 시민들의 하나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 위로 전통문 전달

북한은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우리 측에 위로의 뜻이 담긴 전통문을 전달해 왔다.

북한은 이날 오후 4시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강수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로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내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이 위로의 뜻을 밝혀온 것은 사고 발생 7일 만으로,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4차 핵실험 준비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의 위로 전통문에 대한 답신 문제에 대해 "특별히 현재로서는 우리 입장을 보내거나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쪽 대형 재난이나 사건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지난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태풍 매미 피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2006년 수해 때 위로의 뜻을 표시했다.

hsoh@bostonkorea.com

KT 사상 최대 구조조정, 8,320명 명퇴 신청 유선사업 수익 감소로 영업적자, 계열사 통폐합 이어질 전망

(보스톤 = 보스톤 코리아) 오현숙 기자 = KT가 명예퇴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KT는 지난 8일 근속 15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직원 3만2000여명 가운데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2만3000여명. 70%가량의 직원을 명예퇴직 대상에 올린 것이다.

KT의 명예퇴직은 이석재 전 회장 때인 2009년 12월 이후 4년여 만이다. 지난 10일부터 공식적인 명예퇴직 신청 절차가 시작됐고, 21일 마감한 결과 총 8320명이 신청했다고 KT는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KT가 지난 2003년 이후 진행한 명예퇴직 가운데 최대 규모로 전체의 25.8%, 4명 중 1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이번에 명예퇴직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합리화 조치를 병행해 새로운 부

서나 자회사로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고, 명퇴 대상자도 2009년 20년 근무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했으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데다 복리후생이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KT는 이번 명퇴로 2분기에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매년 약 7000억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의 인력구조를 효율화하고, 젊고 가벼운 조직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지면 전체 인원은 2만4천 명대로 줄고 평균 연령도 46.3세에서 44.5세로 낮아진다.

KT경영지원부부장 한동훈 전무는 "이번 대규모 특별명퇴는 KT가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1등 KT'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KT는 명퇴로 인한 인력감소로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업합리화 대상 업무는 출자사로 위탁해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나머지 분야는 업무 효율화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한편, 명퇴 접수는 마감됐지만 KT와 KT새노조 간의 대립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새노조 측은 "이번 구조조정은 단기적인 비용절감일 뿐, 회사의 장기비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에 불과해, 결국은 정규직이 하던 일을 아웃소싱해서 비정규직에게 넘긴 게 전부"라며 "기업의 단기 수익을 올리겠다는 발상으로 국민 기업이 추구할 혁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KT는 다른 통신사에 비해 임직원 수가 많아 '통신 공룡'



KT의 구조조정은 전 계열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이는 유선사업 중심 인적구조 때문으로 인건비 부담이 경쟁사보다 큰 상황이었다.

이 가운데 유선사업 수익은 매년 4000억원씩 감소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난해 4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1494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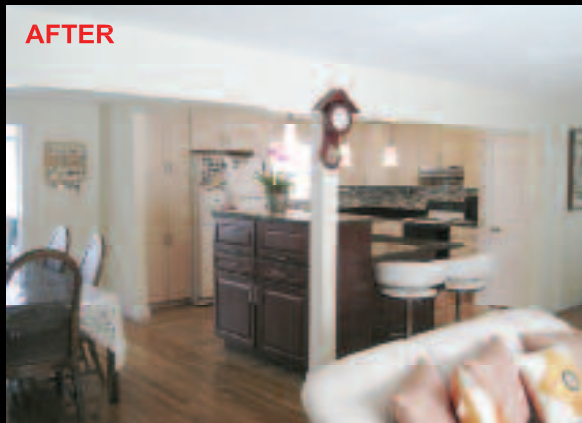
이번 인력 조정이 계열사 정리 등 시스템 정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KT는 이미 기존 사업은 물론 새로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53개 계열사의 통폐합 작업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hsoh@bostonkorea.com

© 2014 OTK DeCon Group. All rights reserved.



Cambridge, MA



AFTER



BEFORE

Lexington,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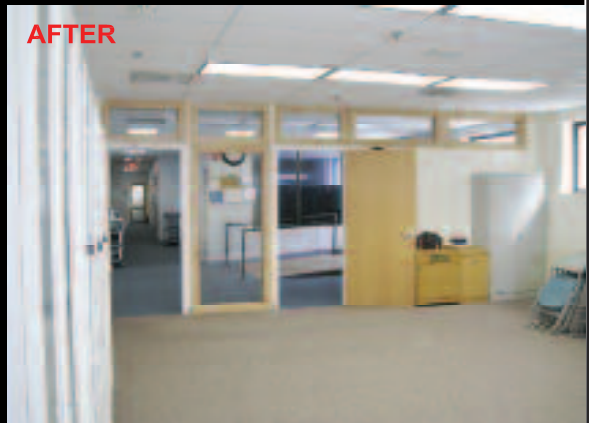


AFTER



BEFORE

Topsfield, MA



AFTER



BEFORE

Woburn, MA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

무료 상담 및 견적

하우스 리모델링

각종 건물 신축 · 증축 · 개축



김원태 건축사

Registered Architect • NCARB • CDT • LEED AP
Design • Construction • Management

건축 & 시공

otk212@gmail.com 617.620.8242





enjoy & TV

전 미주 최초! 방송 3사 모두
시청 가능한 유일한 TV = 안티비

\$ 24.99

(2년 약정시, Tax 면제)

1. 학생증을 보여주세요!

학생 할인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무약정 가능)

2.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시니어 할인(65세이상)

\$24.99(홀드백 Free 상품/1인1대/1년약정)



3. 추가로 설치하세요!

2nd, 3rd 안티비 추가 장비 할인

\$24.99(홀드백 Free 상품/총 3대까지 가능)

www.enjoyandtv.com

KBS1, KBS 2, MBC, SBS 인기 프로그램과 영화, 키즈, 교육, 신앙생활, 골프 등 수만여편의 컨텐츠, 이제 안티비와 함께 다양한 재미와 유익한 정보를 무한대로 즐기세요!

문의 및 연락처

보스톤코리아 TV 사업국

617.955.9112

617.650.6656

*불법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우리 문화 잠재력을 파괴하는 매국 행위입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고국방문 건강검진

〈세상과 현재에 희망을 주고 인간존중의 따뜻한 마음으로 치유한다(Hope • Humanity • Healing)〉는 병원이념을 그대로 옮겨 담은 힐링인터리어로 새롭게 변화된 양지병원에서 뉴스코리아와 함께 고국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새병원 완공과 함께 선진종합병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된 양지병원은 350명씩 확충과 함께 최첨단 의료장비 구비와 우수전문의 대폭 부강으로 수준 높은 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 양지병원

151-852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 10-715



VIP 입원 종합검진

남: 210만원 / 여: 220만원

VIP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뇌 MRA	1. 뇌 MRA
2. 장액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뇌 MRI	2. 뇌 MRI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관상동맥 CT	3. 관상동맥 CT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흉부 (폐) CT	4. 흉부 (폐) CT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5. 심장 초음파	5. 심장 초음파
6. 요 검사 10종	6. 갑상선 초음파	6. 갑상선 초음파
7. 체지방 검사	7. 경동맥 초음파	7. 경동맥 초음파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8. 전립선 초음파	8. 부인과(자궁) 초음파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9. 골밀도 검사	9. 유방 초음파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0. 골밀도 검사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입원 종합검진

남: 60만원 / 여: 70만원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흉부 (폐) CT	1. 갑상선 초음파
2. 장액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전립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골밀도 검사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당일 종합검진

남: 45만원 / 여: 55만원

입원 종합검진 기본항목	남성 추가항목	여성 추가항목
1. 이학적 검사 (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혈압)	1. 흉부 (폐) CT	1. 갑상선 초음파
2. 장액 검사 (순음청력 검사)	2. 전립선 초음파	2. 부인과(자궁) 초음파
3. 혈액 검사 (종합혈액 검사)	3. 골밀도 검사	3. 유방 초음파
4. 암표지자 검사 (간암, 대장암, 췌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4. 골밀도 검사
5. 심폐기능 검사 (흉부 X-Ray, EKG, 노력성 폐활량)		
6. 요 검사 10종		
7. 체지방 검사		
8. 부인과 검사 (자궁 경부암, 유방독수촬영)		
9. 소화기 검사 (위, 대장 수면 내시경)		
10. 복부 초음파 검사 (간장, 췌장, 담 질환)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검사시간

- 당일 종합검진: 8:30am ~ 12:30pm
- 입원 종합검진: 2:30pm ~ 12:30pm(1박 2일)-1인실 (오전 내시경 진행)
- VIP 종합검진: 10:00am ~ 12:30pm (1박 2일)-1인실 (오전 내시경 진행)

★ 특별혜택

- VIP 검진자: 공항 Pick up Service 진행
- VIP 및 입원 검진자: 입원 물품 세트 지원

상담 및 문의 : 617-583-2339

www.pospay24.com



POWERED BY
WorldPayTM
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of

POSPay



 Leaf

무료기계(2중계약 없음)

One Touch Solution POS
24시간 이내 입금

모바일페이 (iPhone, Android)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의족으로 마라톤 코스를 완주해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은 주자

2014 보스톤 마라톤

보스톤은 강했다

(편집자주) = 마라톤 폭탄테러 이후 보스톤마라톤을 보는 감회는 새롭다.

6개월 전부터 주요 보안관계 부서들이 보스톤마라톤의 보안에 관해 토론한 끝에 선수는 물론 관중들까지도 철저하게 로드블럭으로 보호하고 이 공간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소지품 검색을 받아야 했다. 언론에게도 백팩을 허용하지 않는 등 훨씬 강화된 보안 속에 치뤄진 마라톤, 그런데 불편하기 보다는 오히려 안심이 됐다.

프루덴셜 앞에서 연주를 하던 록그룹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마라톤 전구간에 걸쳐 모여들었다. 결승점에도 과거에 비해 오히려 많은 인파가 가득 메웠다.

과거의 마라톤이 다시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보스톤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패트리엇 복장으로 결승점을 향하며 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어먼웰스 애비뉴에서 휠체어 선수를 관중들이 격려하고 있다



펜웨이로 진입하는 길목에 블럭을 설치하고 가방을 수색하고 있다



비들거리는 선수의 손을 잡아 이끄는 선수



휠체어 부문 2,3위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내셔널 가드로 참가한 선수가 힘겹게 달리고 있다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함께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 서비스, 비즈니스 용자 알선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E2 비자 사업체,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탁소들, 린드로맷(Laundromat) 많은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원하시는 사업체를 찾아드립니다.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 보스톤 북쪽 동양식당 연매상 \$600,000+, Full 리커 면허증
-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연매상 \$65,000 좋은 매매가격
- 드롭오프 스토어 연매상 \$155,000+ 부유한 동네
- 알링턴지역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45,000 변화가 좋은 위치
- 보스톤 남쪽 피자/델리/한식 성장가능성 많음. 연매상 \$330,000
- 보스톤 변화가 좋은 장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북쪽 큰 몰안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20,000 소유자 은퇴
- 보스톤 대학가 근처, 세탁소+셔츠유닛, 연매상 \$180,000+\$100,000(홀세일), 60lbs 세탁기(떡아님)
-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360,000 매매가격 \$235,000 소유자 은퇴
- 아침, 점심(6일) 매상 \$180,000 주변에 아파트 신축 중
- 보스톤 북쪽 아침, 점심 5일 오픈, 건물안 위치 연매상 \$180,000
- 로드아일랜드 큰 몰 안 모자+악세사리, 연매상 \$500,000+
- 보스톤 남쪽 피자 연매상 \$300,000 한국식당으로 전환 가능

- 보스톤 남쪽: 중식+스시 연매상 \$ 1M+ Full Liquor 면허증
- 전국 체인 델리, 고급 몰 안에 위치 연매상 \$520,000
- 보스톤 북쪽 주유소+컨비니언스 (2 비즈니스), 연매상 \$1.4M
- 식당 아침, 점심 보스톤 북쪽 주 6일 오픈 연매상 \$180,000
- 뉴튼 세탁소: 연매상: \$120,000+ 홀세일: \$100,000 오너 파이낸스(50%)
-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800,000+부가수익, 비어+와인, 로타리 저렴한 매매가격 \$129,000
-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 론드로맷: 보스톤 연매상 \$180,000 새 장비들 (2010년)
-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145,000 고급동네
- 보스톤 론드로맷 연매상 \$70,000 소유자 부재
- 세탁소 Full Plant +셔츠유닛, \$300,000 +Owner finance 가능
- 론드로맷 +부동산, 연매상 \$230,000 소유자 부자중 경영, 카드시스템, 물값 절약가능-우물보유
- 드롭오프: 보스톤 북쪽 연매상 \$200,000+ Full Plant로 할 수 있음
- 세탁소 뉴튼지역, 연매상 \$145,000 19년 경영, 매매가격 \$139,000



보스톤 교육원

-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및 수속**
 -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 최고 에세이 편집자
 - 최고 전·현직 입학 담당자 상담
- 섬머/윈터 프로그램**
 -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 가디언 업무**
 -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섬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믹 프로그램

SAT 1, 2 / AP 수업

- 최고 전문가들의 강의
- 단기 고득점 완성
- 실전 문제 중심 수업
- 상시 참여 및 주말 수업 가능
-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학업 과목 개인과외 가능

- 영어, 수학, 과학, 외국어, 역사,
- 경제, 심리학, 기타 과목들
-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2014 주말프로그램

SAT I Class

9:00-10:00 vocabulary
10:00-1:00 수업(critical reading, writing)
1:00-2:00 점심
2:00-5:00 실전문제 풀이

Writing Class

- 현직 영어교사 강의
- 장기간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체계적인 글쓰기 교육
- 4-5학년: 10:00-12:00(토)
- 6-8학년: 12:00-2:00(토)

AP 및 SAT II subject, National Spanish Exam 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개인지도 가능

여름방학 SAT I 프로그램

- **실력있는 강사진**
(영문학박사, 공학박사, Ivy졸업생)
- **내실있는 프로그램**
(매일 단어&실전문제test, 엄격한 학사관리)
- **합리적인 수강료**
- **다양한 session**
(6.23~7.11, 7.14~8.01, 8.04~8.22, 9:00-5:30)

Boston Education World, Inc. 보스톤 교육원
128 Wheeler Rd. #301, Burlington, MA 01803 3
tel. 339.234.5255~7 / fax. 339. 234. 5258
www.bostonedu.org 문의: info@bostonedu.org
수업문의: academicservices@bostonedu.org